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강 동 호

2013년 8월

#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연구

지도교수 양진건

강동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강동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인희



위원

박정환



위원

강승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초록】

##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연구

강 동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역사적 특징과 성격을 유배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써왔던 “유배인의 교학 활동(敎學活動)”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주유배교육(濟州流配敎育)’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제주유배교육은 조선시대, 제주라는 시대·지역적 상황과 유배라는 형벌이 만 들어낸 제주의 독특한 교육문화이다. 제주유배교육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역사는 한층 깊어지고 더욱 다양해졌다.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의 역사는 크게 전기와, 중기, 후기, 말기 등 4시기로 대별되었다. 각 시기마다 제주유배인의 현황과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제주교육에 영향을 끼쳤던 유배인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제주유배교육의 의미와 그것이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역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제주교육의 역사 가운데 조선전기는 태조조(太祖朝; 1392)에서 인종조(仁宗朝; 1545) 기간으로 이른바 ‘제주유배교육의 태동기(胎動期)’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왕조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리학적 교육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구축되던 시기이다. 특히 조선전기는 체제의 제도적 정비라는 차원에서 국가교육의 형식 확충이 시급히 요망되었으며 그러한 문교정책적(文教政策的) 필요성에 부응하여

제주도에도 교육의 형식적 기틀이 갖추어지게 되던 때였다.

이 시기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 이른바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으로 빚어진 4대 사화(士禍)로 인해 여러 유배인들이 제주도로 보내지게 된다. 이들 가운데 특히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데올로기를 신봉했던 사림파들이 제주도에 유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교육은 일찍부터 사림의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충암(沖庵) 김정(金淨)’과 ‘이세번(李世蕃)’은 당대 최고의 교육자였던 조광조(趙光祖)와 교우(交友) 또는 사제관계(師弟關係)를 맺었던 사람으로서 제주교육에 남다른 사상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중기는 명종조(明宗朝; 1546)에서 숙종조(肅宗朝; 1720)의 시기로서 ‘제주유배교육의 성숙기(成熟期)’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당쟁으로 관료 상호간의 권력암투가 심대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발전, 심화되던 때였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중기는 출륙억제(出陸抑制)라는 제도적인 금압정책(禁壓政策)이 강요됨으로써 대외적인 교육진출의 길이 거의 봉쇄된 상황에서 교육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쟁으로 인해 빈번해진 유배인과 제주인들과의 교육관계는 어느 정도 그러한 교육적 위축을 보상해 줄 수 있었는데 제주도 굴림서원(橋林書院)의 건립과 오현배향(五賢配享)은 보상의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이 시기는 천하를 평정한 사림파들이 자파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뭉침으로써 발생한 당쟁 때문에 많은 중앙 지식인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16세기, 17세기에 이루어진 조선 성리학 교육사상의 백미(白眉)들이 제주도에 소개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제주교육은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다.

조선후기는 경종조(景宗朝; 1721)에서 고종조(高宗朝; 1896)의 시기로서 ‘제주유배교육의 실천기(實踐期)’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들면서 사회는 세도정치(勢道政治)로 인한 제반폐해(諸般弊害)와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국가재정은 위축 일로에 있었고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인한 세정(稅政)의 불공정과 지방 관리의 불법수탈로 말미암아 국가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면에 민중의 지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그들의 문제의식은 차츰 높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조화 현상 속에서 한 시대의 정신이념이었던 유학 안에는 성리학과 대조적인 사조가 잉태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리학의 반정적(反正的) 흐름인 실학과 성리학의 실천

적 사상인 척사위정사상이 제주도에 소개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제주교육의 전통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실천적 유배인들의 영향은 훈고(訓誥)의 전통에서 제주교육의 전통을 보다 능동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제주유배인으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을 들 수 있는데 추사의 제주도 제자들이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한 것이나 면암의 사상이 후대에 제주의 의병운동과 3.1만세운동 등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들이 이 시기 제주교육의 새로운 전통들이다.

조선말기는 광무 1년(光武 1年; 1897)에서 융희 3년(隆熙 3年; 1910)으로 '제주유배교육의 전환기(轉換期)'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말기는 이른바 개화기(開化期)라고 명명되는 1876년 개항으로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는 종래의 유교적 전통의 제약 속에서 소수의 개화사상가들이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려는 의도에서 근대교육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근대적 교육사상의 형성되고 그것이 대중 속에 침투함으로써 대중적 교육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타의 시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시기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됨으로써 제주교육이 구(舊) 교육에서 근대교육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주도에 전무했던 여성근대교육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가능하게 된 것도 박영효와 같은 개화 지식인의 제주유배가 아니었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선시대의 제주교육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막론하고 유배인들의 교육적 활동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만큼 조선시대 제주교육에서 유배교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유배교육을 통해 조선시대 교육이데올로기가 제주도에 보급되고, 가르쳐지고, 논의되어 그에 따른 교육전통이 만들어짐으로써 제주교육의 특수한 역사적 양식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 목 차

|                                 |           |
|---------------------------------|-----------|
| <b>I. 서 론</b> .....             | <b>1</b>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4         |
| <b>II. 유배교육의 개념과 시대구분</b> ..... | <b>6</b>  |
| 1. 개념 .....                     | 6         |
| 2. 시대구분 .....                   | 8         |
| <b>III.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b> .....  | <b>12</b> |
| 1. 조선전기 .....                   | 12        |
| 1) 조선전기 제주교육의 특징 .....          | 12        |
| 2) 조선전기 제주유배인 현황 및 특징 .....     | 15        |
| 3) 조선전기 제주유배교육 .....            | 19        |
| 4) 조선전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        | 24        |
| 2. 조선중기 .....                   | 27        |
| 1) 조선중기 제주교육의 특징 .....          | 27        |
| 2) 조선중기 제주유배인 현황 및 특징 .....     | 29        |
| 3) 조선중기 제주유배교육 .....            | 34        |
| 4) 조선중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        | 43        |
| 3. 조선후기 .....                   | 45        |
| 1) 조선후기 제주교육의 특징 .....          | 45        |
| 2) 조선후기 제주유배인 현황 및 특징 .....     | 48        |
| 3) 조선후기 제주유배교육 .....            | 56        |

|                                   |           |
|-----------------------------------|-----------|
| 4) 조선후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          | 61        |
| 4. 조선말기 .....                     | 63        |
| 1) 조선말기 제주교육의 특징 .....            | 63        |
| 2) 조선말기 제주유배인 현황 및 특징 .....       | 65        |
| 3) 조선말기 제주유배교육 .....              | 67        |
| 4) 조선말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          | 70        |
| <b>IV.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의 의미 .....</b> | <b>71</b> |
| <b>V. 결론 및 제언 .....</b>           | <b>76</b> |
| 1. 결론 .....                       | 76        |
| 2. 제언 .....                       | 77        |
| <b>참고문헌 .....</b>                 | <b>79</b> |
| <b>Abstract .....</b>             | <b>83</b> |



## 표 목차

|                           |    |
|---------------------------|----|
| <표 1> 교육 용어의 분류 .....     | 6  |
| <표 2> 조선전기 제주유배인 현황 ..... | 15 |
| <표 3> 조선중기 제주유배인 현황 ..... | 29 |
| <표 4> 제주도 문과 입격자 분류 ..... | 43 |
| <표 5> 조선후기 제주유배인 현황 ..... | 48 |
| <표 6> 조선말기 제주유배인 현황 ..... | 65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의 지도이념은 국가의 교육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조선의 사상 체계는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 유학(儒學)이었다. 조선은 유학을 바탕으로 태조의 즉위교서에서부터 '흥학(興學)'을 강조하고 이를 장려한다. 이는 유학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며, 정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도덕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육체제를 확장하고 정비한다. 그 결과 성균관, 향교 등이 전국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시대 제주인들은 교육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제주도 교육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유배인(流配人)들의 교학활동(敎學活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시대 유배형의 기초는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 나와 있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형의 오형제도이다. 그 중 유배형은 사형에 처하기는 과하지만 중죄를 지은 죄인에게 태, 장과 함께 적용한 형벌이었다. 조선시대 제주는 중앙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최악의 유배지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많은 유배인이 제주도로 보내졌다. 그 중 다양한 신분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 그 수가 가장 많은 유배인은 당연 관료계층이었다. 유배의 속성이 권력투쟁의 산물로써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정치인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성리학적 이념과 도를 연마한 사대부(士大夫)로서 정치인이자 학자였다. 그런 그들이 유배를 당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단절되고, 학자로서의 역할만 남게 된다. 그렇기에 그들은 유배지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자신들에게 남겨진 학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학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유림들은 유배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그들을 통해 학문을 이어나가게 된다. 교육 활동의 기본요소 중 하나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라고 본다면 유배인들은 제주유림들에게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렇기에 사대부 유배인들이 제주로 오게 되면 제주유림들은 그들을 방문하여 사우강습(師友講習)의 학적관계(學的關係)를 맺었고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형성(人格形成)과 자기실현(自己實現)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역사적 특징을 유배인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제주유배인의 교학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제주교육사에서 유배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주로 유배인 개인의 교학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sup>1)</sup> 다시 말해, 조선시대 전체를 아울러 유배인의 교학활동과 제주교육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시대 제주유배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제주교육에 영향을 끼쳤던 유배인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제주유배교육의 의미와 그것이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역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1) 현재까지 진행된 제주유배인의 교학활동 연구는 다음과 같다.

- ※ 양진건,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 - 道統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3집, 1986.
- ※ 양순필·양진건,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6호, 탐라문화연구소, 1987.
- ※ 양진건, 「濟州 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호, 탐라문화연구소, 1988.
- ※ 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제9호, 탐라문화연구소, 1989.
- ※ 양진건, 「濟州流配人の 開化敎學活動 研究」, 『民族文化研究』 제23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0.
- ※ 양진건,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育思想 研究」, 『제주도연구』 제9집, 제주도연구회, 1992.
- ※ 양진건,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제4집 3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 ※ 양진건, 「勉庵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한국교육사학』 24-1, 한국교육사학회, 2002.
- ※ 양진건,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5-1, 한국교육사학회, 2003.
- ※ 양진건, 「동계 정은 서원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집 2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0.
- ※ 김인기, 「조선후기 면암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 양은숙,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에 대한 제주교육사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 김유리,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제40호, 탐라문화연구소, 2012.
- ※ 김유리, 「규창 이건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제20호, 한국국학진흥원, 2012.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외연(外延)을 확장하고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제주유배교육'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찾고자 한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유배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선 시대 태조(太祖) 원년(1392)부터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융희(隆熙) 3년(1910)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조선시대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으로 유배된 유배인을 조사하여 그 시기별 유배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중 유배교육사에서 다루어야 할 인물을 선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제주유배관련 연구에서는 추자도(楸子島)를 제주도에 포함하여 진행한 연구가 많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추자도를 제외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전체로 보았을 때 추자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것<sup>2)</sup>은 비교적 근래에 일이며 조선시대 유배인의 유형지를 선정할 때 각 지역별로 특정지어 유배를 보내기 때문에 추자도를 제주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추자도도 제주와 같은 원악의 유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추자도 유배인의 교학활동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추자도를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주유배교육사의 인물 선정은 다음과 같다. 제주유배인 가운데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이 전해 오는 유배인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교학활동에 대해 밝히고 그 의미를 도출한 유배인을 포함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온라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등을 통해 유배인을 조사하였다. 우선 조선시대 공식 기록인 위의 문헌에서 제주유배인의 기록을 근거로 유배인을 조사하였으며, 기록을 찾기는 어려우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2) 행정구역상으로 고종 18년(1881)에 제주도로 편입된다.

제주유배인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인물을 제주유배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그들의 제주유배 교학활동 근거를 토대로 제주유배교육사 인물을 설정하였으며 시대구분을 통해 조선시대 전체 제주유배교육의 흐름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과거의 교육적 사실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 내고 이를 통해 제주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규정하는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 II. 유배교육의 개념과 시대구분

### 1. 개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유배인들의 교육활동(教育活動)에 대해 ‘유배인의 교육활동(教育活動)’ 혹은 ‘유배인의 교학활동(敎學活動)’이라고 사용했던 용어를 ‘유배교육(流配教育)’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유배교육’이란 용어의 정의가 완전한 용어로서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용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유배인의 교육활동과 교학활동이 가지는 의미의 한계와 조선시대 교육사에서 유배인의 교육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 할 때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고하다. 그러한 이유로 부족하지만 본 고에서 처음으로 ‘유배교육’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합성어로서 교육을 수식하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표1> 교육 용어의 분류<sup>3)</sup>

| 구분    | 내용   | 시기   | 대상   | 지역   | 형식   | 기간   |
|-------|------|------|------|------|------|------|
| 대표적 예 | 국어교육 | 고대교육 | 유아교육 | 제주교육 | 학교교육 | 평생교육 |

위의 범주로 보면 유배교육이란 용어는 내용으로써 ‘유배를 교육’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유배’라는 형벌은 그 내용적 측면을 교육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유배교육’이라고 할 때 ‘유배를 교육’한다는 의미로 인식하고자 할 때에도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유배교육’이 필자가 의도하는 의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유배교육

3) <표1>의 분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 유배인의 교육'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유배(流配)를 '죄인을 귀양 보내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유배는 유배인을 귀양 보내던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유배의 의미에서 죄인은 빠질 수 없는 필수 대상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이유로 '유배'에서 '유배인'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배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은 사람의 행위라는 대상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배교육'이 '유배인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필자가 '유배교육'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유배인의 교학활동'이 지니는 의미의 한계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학활동(敎學活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학(敎學)』이라는 용어는 교육을 보다 넓게 개념화 한 것으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자기실현(自己實現) 혹은 인격실현(人格實現)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식, 비형식의 교육적 제반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교학활동'이라는 용어는 당대의 유배인과 지역민의 만남을 통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시·공간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배교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유배인의 『교학활동』을 의미한다.
- ② 유배인의 후손과 제자들의 지속적인 교학활동을 의미한다.
- ③ 유배인을 통해 형성된 지역의 학문적 경향과 영향을 총칭한다.

다시 말해 유배교육은 '유배인의 교학활동'보다 확장된 의미이다. 유배인의 교학활동이 지니는 한정된 시·공간의 의미를 벗어나 유배인의 교육적 영향이 그들의 후손, 제자관계, 제자의 후손 등을 통해 다양하게 후대의 시·공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제주유배교육'은 유배인이 지역민들을 교육과 학문을 통해 자기실현 혹은 인격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식, 비형식의 모든 교육적 제반활동을

4) 양진건, 「秋史文獻拔萃學術調査」보고서, 남제주군, 2005, p23.



의미하며 나아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후대의 모든 교육적 영향과 관계를 총칭한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2. 시대구분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시대구분은 필연적이다. 역사 연구가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라면 시대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연구는 해당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사의 내용과 의미를 도출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시대구분을 통해 역사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교육사에서든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교육사 연구 역시 시대구분을 규정짓는다. 일반적으로 시대구분은 크게 왕조에 의한 구분, 특정 주제의 의한 구분, 시간의 원근에 의한 구분, 마지막으로 사회구조 및 성격과 발전과정에 의한 구분 등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연구에서 이 구분 방법이 독자적일 수는 없으나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로써 시대구분의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제주유배교육사는 제주의 교육사와 유배인의 교학활동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는 제주 교육의 특징과 함께 해당시기 유배인이 제주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교육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제주 교육의 시기적 특징을 구분하고 있는 양진건의 시대구분을 따르고자 한다.<sup>5)</sup> 본 연구에서 제주유배교육사의 의미를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흐름을 토대로 제주유배교육사의 시대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진건의 시대구분 역시 조선시대 제주의 교육사상사를 제주의 독특한 교육환경과 제주유배인의 교학활동 등을 통해 살펴보았기에 본 논문에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양진건의 시대구분을 따르되 필자는 제주유배교육사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양진건,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p54~58.

조선전기 : 태조조(太祖朝; 1392) ~ 인종조(仁宗朝; 1545)

『유배교육의 태동기(胎動期)』

조선중기 : 명종조(明宗朝; 1546) ~ 숙종조(肅宗朝; 1720)

『유배교육의 번영기(繁榮期)』

조선후기 : 경종조(景宗朝; 1721) ~ 고종조(高宗朝; 1896)

『유배교육의 실천기(實踐期)』

조선말기 : 광무 1년(光武 1年; 1897) ~ 융희 3년(隆熙 3年; 1910)

『유배교육의 전환기(轉換器)』

조선전기는 태조조(太祖朝; 1392)에서 인종조(仁宗朝; 1545) 기간으로 이른바 '제주유배교육의 태동기(胎動期)'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왕조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리학적 교육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구축되던 시기이다. 특히 조선전기는 체제의 제도적 정비라는 차원에서 국가교육의 형식 확충이 시급히 요망되었으며 그러한 문교정책적(文教政策的) 필요성에 부응하여 제주도에도 교육의 형식적 기틀이 갖추어지게 되던 때였다.

이 시기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 이른바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으로 빚어진 4대 사화(士禍)로 인해 여러 유배인들이 제주도를 찾게 된다. 이들 가운데 특히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데올로기를 신봉했던 사림파들이 제주도에 유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교육은 일찍부터 사림의 교육사상의 세례를 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충암(沖庵) 김정(金淨)'과 '이세번(李世蕃)'은 당대 최고의 교육자였던 조광조(趙光祖)와 교우(交友) 또는 사제관계(師弟關係)를 맺었던 사람으로서 제주교육에 남다른 사상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중기는 명종조(明宗朝; 1546)에서 숙종조(肅宗朝; 1720)의 시기으로써 '제주유배교육의 성숙기(成熟期)'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당쟁으로 관료 상호간의 권력암투가 심대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발전, 심화되던 때였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중기는 출륙억제(出陸抑制)라는 제도적인 금압정책(禁壓政策)이 강요됨으로써 대외적인 교육진출의 길이 거의 봉쇄된 상황에서 교육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쟁으로 인해 빈번해진 유배인과 제주인들과의 교육관계는 어느 정도 그러한 교육적 위축을 보상해 줄 수 있었는데 제주도 굴

림서원(橘林書院)의 건립과 오현배향(五賢配享)은 보상의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이 시기는 천하를 평정한 사림파들이 자파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뭉침으로써 발생한 당쟁 때문에 많은 중앙 지식인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16세기, 17세기에 이루어진 조선 성리학 교육사상의 백미(白眉)들이 제주도에 소개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제주교육은 보다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다.

조선후기는 경종조(景宗朝; 1721)에서 고종조(高宗朝; 1896)의 시기로써 '제주유배교육의 실천기(實踐期)'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들면서 사회는 세도정치(勢道政治)로 인한 제반폐해(諸般弊害)와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국가재정은 위축일로에 있었고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인한 세정(稅政)의 불공정과 지방 관리의 불법수탈로 말미암아 국가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반면에 민중의 지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그들의 문제의식은 차츰 높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조화 현상 속에서 한 시대의 정신이념이었던 유학 안에는 성리학과 대조적인 사조가 잉태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리학의 반정적(反正的) 흐름인 실학과 성리학의 실천적 사상인 척사 위정사상이 제주도에 소개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제주교육의 전통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실천적 유배인들의 영향은 훈고(訓誥)의 전통에서 제주교육의 전통을 보다 능동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제주유배인으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을 들 수 있는데 추사의 제주도 제자들이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한 것이나 면암의 사상이 후대에 제주의 의병운동과 3.1만세운동 등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들이 이 시기 제주교육의 새로운 전통들이다.

조선말기는 광무 1년(光武 1年; 1897)에서 융희 3년(隆熙 3年; 1910)으로 '제주유배교육의 전환기(轉換期)'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말기는 이른바 개화기(開化期)라고 명명되는 1876년 개항으로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는 종래의 유교적 전통의 제약 속에서 소수의 개화사상가들이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려는 의도에서 근대교육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어 근대적 교육사상의 형성과 그것이 대중 속에 침투함으로써 대중적 교육은

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타의 시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시기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됨으로써 제주교육이 구(舊) 교육에서 근대교육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주도에 전무했던 여성근대교육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가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한 것은 박영효와 같은 개화 지식인의 제주유배가 아니었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

### Ⅲ.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 1. 조선전기

##### 1) 조선전기 제주교육의 특징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조선전기의 시대는 태조조(太祖朝; 1392)에서 인종조(仁宗朝; 1545)에 걸친 기간이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펴 나갔으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제주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제주도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지방호족의 장이 함께 지배하는 이중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중앙에서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제주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토착세력을 회유하는 차원에서 토관직(土官職)을 운영하였다.

조선전기 대(對) 제주도 정책으로는 크게 선상정책(選上政策)과 향교정책(鄕校政策), 그리고 과거정책(科擧政策)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조선전기 제주 교육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우선 제주자제(子弟)의 선상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자제 선상은 제주가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과거를 통한 정계 진출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조선 왕실에서 배려와 회유책(懷柔策)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문자 그대로 제주의 자제 중 우수한 자를 내부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면 조정에서 관직에 임명해 주는 제도이다. 자제선상 제도는 제주도에 국한되어 시행된 것은 아니며 평안도, 함경도 등 31개처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선상제도는 제주의 특수한 분리적 성향에 대한 회유책임과 동시에 지방 토호 세력의 자제를 중앙으로 끌어들이어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자제의 선상은 세조 때에는 평안도 14개처, 함경도 14개처, 제주삼읍 등 모두 31개처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방자제를 동서반(東西班)에 등용할 수 있도록 했었

다. 이때 제주자제는 제주 4명, 정의, 대정이 각 2명씩 군직(軍職)으로서 서반직(西班牙職)에 오를 수 있었다.<sup>6)</sup> 이 원칙은 이후 변동이 되어 영안도, 평안도 자제의 정원이 10명이었고 제주자제의 정원은 30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sup>7)</sup>

조선시대 대표적 지방교육기관인 향교(鄕校)는 제주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교는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존재한 유일한 관학(官學)이었으며 공자를 봉사(奉仕)하기 위해 마련된 문묘(文廟)가 소재한 공적 기구였기 때문이다.<sup>8)</sup>

태조의 즉위 기사를 보면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sup>9)</sup>라 하여 조선 건국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통치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고려 인종 5년(1127)에 등장한 향교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국적인 확대를 보게 되었으며 성종 때에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었지만 제주도에는 태조 원년(1392)에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졌었다.<sup>10)</sup> 태조 3년부터는 교수관을 두고 학교에 10세 이상의 토관 자제들을 교육시켜 국시에 나가게 하였다.<sup>11)</sup> 그 후 정의(旌義), 대정(大靜)의 양현(兩縣)은 태종 16년(1416)에 분치(分置)되어 그 후 곧 향교가 설치되었으며 이로써 제주도에는 3개의 향교가 설립되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빠르게 향교가 설립된 것은 조정에서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관료 선발시험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점차 그 기능은 과거를 통한 입격자(入格者) 자신 혹은 그 가문의 사회적 유지 수단 및 사회이동을 위한 통로로 쓰이게 된다. 제주

6) 『世祖實錄』 卷37, 11年 11月 己未 「平安道 平壤子弟一人 用之東班 江邊六 郡子弟 用之司僕 寧邊 安州 義州 麟山 龜城 定州 成川子弟 用之西班 咸吉 道 咸興子弟 用之東班 六鎮 三水 甲山子弟 用之司僕 鏡城 吉州 端川 北青 永興子弟 用之西班 以之濟州子弟四人 旌義 大靜子弟 各二人 亦用西班」.

7)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條.

8)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2001, p75.

9) 『太祖實錄』 1卷, 1年 7月 28日 丁未 「一,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學校案, 「在域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鄕校再造」. 『增補文獻備考』, 卷209, 學校考8, 鄕學, 「太祖元年 是年 濟州學校成」.

11) 『太祖實錄』 卷5, 3年3月, 丙寅, 「都評議使司上言…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上從之」.

12) 양진건, 앞의 책, p76.

도 역시 동등하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지리적 특성상 쉽지 않았다.

이에 중앙에서는 어사를 파견해 외방별시(外方別試)를 시행한다거나 전라도 문과초시 1액을 제주에 할당하거나 또는 소과초시(儒生陞補試)를 제주관위에 위임함으로써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제주인의 불이익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방별시가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만 거행되고 승보시(陞補試)는 문관수령(文官守令)이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한 관계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었다.<sup>13)</sup>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전기 제주교육의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제주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다양한 회유책을 통해 중앙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 정리 할 수 있다.

---

13) 양진건, 앞의 책, p134, 재인용.

## 2) 조선전기 제주유배인 현황 및 특징

### (1) 조선전기 제주유배인 현황

본 고에서 다루는 조선전기는 태조 원년(太祖; 1392)부터 인종조(仁宗朝; 1545)까지이다. 조선전기의 제주유배인의 현황은 다음 <표2>과 같다.

<표 2> 조선전기 제주유배인 현황<sup>14)</sup>  
(太祖(1392) ~ 仁宗(1545))

| 연번 | 왕조 | 연도        | 유배인          | 유배기간  | 유배지역 | 비고                     |
|----|----|-----------|--------------|-------|------|------------------------|
| 1  | 태조 | 원년(1392)  | 김만희<br>(金萬希) | 미상    | 제주목  | 김해김씨 좌정승공파<br>입도조(入島朝) |
| 2  |    | 원년(1392)  | 한천<br>(韓蕝)   | 미상    | 정의현  | 청주한씨<br>입도조(入島朝)       |
| 3  | 태종 | 원년(1401)  | 이미<br>(李美)   | 미상    | 미상   | 경주이씨<br>입도조(入島朝)       |
| 4  |    | 9년(1409)  | 민무구<br>(閔無咎) | 1년미만  | 미상   |                        |
| 5  |    | 9년(1409)  | 민무질<br>(閔無疾) | 1년미만  | 미상   |                        |
| 6  |    | 23년(1411) | 모지리<br>(毛知里) | 미상    | 미상   |                        |
| 7  | 세조 | 2년(1456)  | 신이중<br>(辛以中) | 3년    | 미상   |                        |
| 8  |    | 11년(1465) | 김처례<br>(金處禮) | 9년    | 미상   |                        |
| 9  |    | 11년(1465) | 부황<br>(夫黃)   | 미상    | 미상   |                        |
| 10 | 예종 | 원년(1469)  | 민수<br>(閔粹)   | 1년~2년 | 미상   |                        |
| 11 | 성종 | 13년(1482) | 윤후<br>(尹逅)   | 13년   | 미상   |                        |



|    |           |           |              |            |       |                    |
|----|-----------|-----------|--------------|------------|-------|--------------------|
| 12 | 연산군       | -         | 최유연<br>(崔有淵) | 미상         | 미상    | ※ 석방기사(연산군4년)만 존재함 |
| 13 |           | 2년(1495)  | 김순손<br>(金舜孫) | 1년~2년      | 대정현   |                    |
| 14 |           | 4년(1498)  | 홍유손<br>(洪裕孫) | 미상         | 미상    |                    |
| 15 |           | 9년(1503)  | 송산<br>(松山)   | 미상         | 미상    |                    |
| 16 |           | 10년(1504) | 홍상<br>(洪常)   | 1년~2년      | 미상    |                    |
| 17 |           | 10년(1504) | 유현<br>(柳軒)   | 2년~3년      | 미상    |                    |
| 18 |           | 10년(1504) | 김양보<br>(金良輔) | 2년~3년      | 대정현   |                    |
| 19 |           | 10년(1504) | 이원<br>(李源)   | 1년미만       | 미상    |                    |
| 20 |           | 10년(1504) | 한충인<br>(韓忠仁) | 미상         | 미상    |                    |
| 21 |           | 11년(1505) | 이각답<br>(李曠畝) | 미상         | 미상    |                    |
| 22 |           | 12년(1506) | 박인손<br>(朴仁孫) | 미상         | 미상    |                    |
| 23 |           | 중종        | 14년(1519)    | 김정<br>(金淨) | 1년~2년 | 제주목                |
| 24 | 15년(1520) |           | 이세번<br>(李世蕃) | 미상         | 대정현   | 고부이씨<br>입도조(入島朝)   |
| 25 | 29년(1534) |           | 김세한<br>(金世翰) | 5년~10년     | 미상    |                    |

14) 조선시대 제주유배인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재형(2011,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하였다. 필자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양진건), 『제주도 유인전』(김봉현) 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추가지역 유배인은 제외하였고 출전이 분명하지 않은 유배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세번의 경우 김재형은 ‘『중종실록』 15년 7월 15일’을 출전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기사의 내용은 이세번의 제주유배 기사가 아니라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기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인성(인조 20년), 이선철(인조 2년) 등의 유배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주유배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진영(인조 20년), 강문성(인조 23년) 등은 제주유배가 확인되어 제주유배인으로 포함하였다.

## (2) 조선전기 제주유배인 특징

이 시기 필자가 조사한 제주유배인 수는 25명이다. 조선시대 전체 제주유배인 수를 감안하면 많은 수는 아니다. 당쟁(黨爭)과 왕권강화(王權強化)등으로 인해 조선중기와 후기에 유배인이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전기의 유배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조선전기 제주유배인의 가장 큰 특징은 대다수 유배인의 유배지역이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점이다. 태종16년(太宗; 1416)부터 제주도는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세 고을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후 대정과 정의현의 수령을 두고, 교수관을 파견하는 등 제주를 행정구역 상 나누어 통치하게 된다. 그러나 형벌을 집행함에 있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총칭 제주 외에 대정이나 정의를 특정 지역 유배를 보내는 것은 광해군 즉위년(1608) 이홍로(李弘老)<sup>15)</sup>가 처음이다. 이홍로의 경우는 사관(史官)이 ‘대정’으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종 16년 이후 200년 동안 유형지로서 제주를 세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제주유배인들의 유배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중기 이후부터 가능한 분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조선전기 유배인의 유배사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 건국에 반대한 인물들의 유배이다. 고려충신이었던 김만희(金萬希), 한천(韓臧), 이미(李美)가 그들이다. 이들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새 왕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유배된다. 이들은 모두 해당 성씨파의 제주입도조(入島朝)가 된다. 김만희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한천은 청주한씨, 이미는 경주이씨 입도조(入島朝)이다. 이들 유배인들의 지조와 절의는 제주도 주민들에게 ‘충’의 교육적 이념을 간접적으로 인식시켰으며 후손들이 제주에 터를 잡고 지내면서 그러한 가치관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는 다른 유배인의 후손들이 제주의 분리주의적 성향과 배타주의적 성향, 그리고 운동적 기질등과 결합하여 조선 말기 민란

15) 『光海君日記』2卷, 3月 15日 壬寅 「府院司憲府、司諫院兩司啓請許浚遠竄, 又啓: “李弘老, 本以兇悖邪毒之人, 龍灣上疏之後, 自知心迹敗露, 做作無根不測之說, 以爲交構之計, 其爲兇慘有不忍言。(不可止於遠竄) 請命絕塞圍籬安置。…… 大靜定配」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과 다른 모습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왕권강화를 위해 희생된 인물들의 유배와 사사(賜死)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태종(太宗)은 자신의 처남인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형제를 제주로 유배 보낸다. 그리고 제주 생활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들을 자진해서 죽게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가운데 처음으로 사사(賜死)된 인물들이다.

마지막으로 사화(士禍)와 관련된 유배이다. 조선전기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으로 거센 피바람이 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림파들이 제거되고 유배당한다. 연산군 4년(燕山君; 1498)에 일어난 무오사화(戊午士禍)로 홍유손(洪裕孫)이 제주로 유배당한다. 연산군 10년(1504)년 때 일어난 갑자사화로 인해 홍상(洪常)과 유현(柳軒), 김양보(金良輔)등이 제주로 유배되고 중종 14년(中宗; 1519)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해 김정(金淨), 이세번(李世蕃)등이 유배 당한다. 조선전기 사화로 인해 유배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개혁 정치는 허무하게 끝이 나 버린 것이지만 제주인들을 교육하며 삶의 가치를 이어나가게 된다. 사화와 관련한 유배인들이 조선전기 제주유배교육의 핵심인물이며 이들을 통해 제주유배교육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조선전기 제주유배교육

#### (1) 김정(金淨; 1486~1521)

충암(沖庵) 김정은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원충(元冲)이다. 김정은 1507년 증광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보임되고, 수찬(修撰)·병조좌랑을 거쳐 정언(正言)으로 옮겨졌다. 뒤에 사예(司藝)·부제학·동부승지·좌승지·이조참판·도승지·대사헌 등을 거쳐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성장은 괄목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당시 사람과의 급속한 성장과 관계있는 것이었다.

김정은 조광조와 함께 왕도정치 실현을 위해 개혁을 가속화했고 지치주의(至治主義)를 내세우며 향약운동(鄉約運動)에 헌신했다. 그러나 조광조를 필두로 한 사람과의 개혁정치에 불만이 컸던 남곤(南袞), 홍경주(洪景舟)등 훈구파들의 계략에 빠져 사람과들이 숙청되는 기묘사화(己卯土禍)가 일어난다. 김정은 사형 직적, 금산(金山)으로 유배되는데 금산 유배 중에 고향의 노모를 만난 문제로 망명죄가 추가 되었다. 결국 그는 중종 15년(中宗; 1520) 8월 제주로 유배되고 1년여의 적소생활(適所生活)을 끝으로 교사자진(絞死自盡)한다. 그 때 그의 나이는 36세였다.

김정은 제주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그의 조카에게 적어서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이다. 이 글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16세기 제주지역의 풍토와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것으로 최초의 제주풍토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글이다. 이 글에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 풍속과 습속, 언어와 사회상 및 유배지의 환경과 정신적 상황 등이 언급되어 있다<sup>16)</sup>.

김정은 <제주풍토록>을 통해 당시 제주의 현실모습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드러낸다. <제주풍토록>은 김정의 사상과 교육관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우선 김정은 교육을 통하여 조선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정치와 도덕적이며 공동체에 필요한 협동의식을 제주사람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했다. 이에 김정은 사람의

16) 김유리,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p229.

경학적 전통에 따라 학문을 권하고 유배교육활동에 진력하여 김양필(金良弼), 문세걸(文世傑)등과 학적관계(學的關係)를 맺는다.

특히 김양필에 대해서는 “이 고장 출신의 생원인 김양필을 제외하고는 글을 아는 사람이 아는 적다.”고 했는데 그만큼 김양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양필은 그 후 제주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제주 교수로 있으면서 후진을 위해 학업을 권장하였으며, 중종 29년(1534) 제주목사 심연원(沈連源)을 도와 남성 밖에 향학당(鄉學堂)을 세우고 1536년 가을 제주향교의 명륜당(明倫堂)을 보수하였다. 또한 김양필의 가문은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는 등 김양필 이후에도 그들의 가학적 전통은 계속 이어진다.

김정과 학적관계를 맺은 문세걸은 『충암집(沖庵集)』에 실린 「도문사호(悼文士豪)」라는 시의 원주(原註)에 “탐라의 뛰어난 인물인데 요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짧은 나이에 요절하여 그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찾기는 어려우나 김정의 애도시에는 “가슴을 터놓을 상대였다.”라고 하여 김정과 문세걸이 다양하게 교류하고 뜻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김정은 미신 타파와 향약의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는데 <제주풍토록>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귀신을 무척 숭상하여, 남자 무당이 아주 많은데, 재난을 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여 재물을 산처럼 취한다. ……(중략) 내가 예전에 듣기에, 이곳은 뱀이 무척 많은데, 비가 내리려고 할 때면 뱀이 머리를 성 담장의 구멍으로 무수히 나란히 내민다 하였는데, 이곳에 와서 조사해보니 헛된 말일 뿐이다. 단지 뱀이 육지보다 많을 뿐이다. 추측건대 이 고장 사람들이 지나치게 숭배하기 때문일 것이다.<sup>17)</sup>

제주도의 무당과 미신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이를 개선할 것을 제주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는 김정이 사회질서 개선에 뜻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제주의 풍토를 갱신하기 위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金淨, 「濟州風土錄」『沖庵集』券4. 「酷崇祠鬼。男巫甚多。嚇人災禍。取財如土。名曰朔望七七日。(初七十七二十七) 必殺性爲淫祠。淫祠幾至三百餘所。歲增月加。妖訛屢騰。人疾病。甚畏服藥。謂爲鬼怒。至死不悟。俗甚忌蛇。奉以爲神。見卽呪酒。不敢驅殺。吾則遠見必殺。土人始而大駭。久而慣見。以爲彼異土人。能如是耳。終不悟蛇之當殺。惑甚可笑。吾舊聞此地蛇甚繁。天欲雨。蛇頭駢出城縫數四云者。到此驗之。虛語耳。但蛇多於陸土而已。意亦土人崇奉之過耳」

또한 김정은 제주의 토호세력과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를 언급하면서 제주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주의 백성들이 어리석어 “만약 학문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영원히 풍속을 바꿀 기약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년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김정이 제주유배인으로서 제주에 영향을 끼친 점은 자명해 보인다. 김정이 제주오현(濟州五賢)에 배향(配享)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이 사사(賜死)된 후 세조 11년(世祖; 1578)에 판관 조인후(趙仁後)에 의해 제주에 충암묘(冲菴廟)가 건립된다. 충암묘의 사호(祠號)는 바로 김정의 호를 취한 것이며, 당초의 위치는 가락천 동쪽이었다. 그 후 현종6년(顯宗; 1665)에 이르러 충암묘가 장수당이 있는 위치로 옮겨지면서 사(祠)와 재(齋)를 갖춘 명실상부한 서원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굴림서원(橋林書院)이다. 서원배향은 그 자체만으로도 후대 사람들에게 상당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김정 외에 굴림서원에는 김상헌(金尙憲), 정온(鄭蘊), 송인수(宋麟壽) 그리고 송시열(宋時烈) 이렇게 5명의 유현이 배향되었다. 이중 김정, 정온, 송시열 세 명이 유배인이다.

## (2) 이세번(李世蕃)( ~ 1526)

이세번(李世蕃)은 기묘사화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이세번의 제주유배와 관련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세번이 기묘사화와 관련하여 체포되는 내용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다.<sup>18)</sup>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세번의 제주유배를 언급하고 있다.

이세번의 제주유배에 대해서는 김봉옥의 『증보 제주통사』와 양진건의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김봉현의 『제주도 유인전』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세번은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등이 화를 입게 되

18) 『中宗實錄』卷43, 16年 10月 17日 乙未 「傳于沈貞、洪淑曰：“其往詔獄，推決昨囚二十人等。”【西門外屯聚者。】又傳曰：“申潛、宋好禮、安斑等非徒會謀于處謙處也，有三清洞屯聚謀議之事，何不并入其招耶 其刑訊可也。”申潛、宋好禮、安斑等皆刑問。傳曰：“義禁府郎官李世蕃、漢城府該官金定國等事多解緩，其罷職，決杖可也。”【因照律單子，而有是教。】……“不較首從，皆用大杖，則慮或多傷。處謙錄中人以校正杖刑問何如？雖用此杖，猶可得情。”傳曰：“依啓。”」.

자 성균관 유생, 경향 유생들과 함께 광화문 밖에 모여 연일 조광조 등이 무죄임을 변호하는 데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 제주로 유배 오게 된다. 이세번은 대정현 둔포(屯浦 : 지금의 신도리)에 적거하면서 그곳의 자제들을 가르치던 중 병으로 1526년(중종 21년)에 죽었다.

이세번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지만 이세번의 학식과 성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학포집(學圃集)』 <기묘당금록(己卯黨禁錄)>에 기묘사화에 연루된 131명 가운데 이세번에 대해서 '이세번 의금부도사에서 파직되었다(李世蕃, 以都事罷斥)' 이라는 간략한 기록이 보인다. 또 작자 미상의 『기묘록속집(己卯錄續集)』 <별과시 천거인(別科時 薦舉人)> '경외관동천인(京外官同薦人)' 78명 가운데 이세번에 대한 기록은, '전 도사 이세번은 학식과 지조가 있었다(前都事 李世蕃 有學文操守)'라고 했다. 별과에 천거된 사람은 모두 120명이었으나 등용된 사람은 모두 28명이며, 따로 14명이 전하지만 굳이 천거되었던 78명을 모두 기록한 것은 그들의 학식과 행실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퇴당(知退堂) 이정형(李廷馨, 1549~1607)의 『지퇴당집(知退堂集)』 <황토기사(黃兔記事下)>에, '별과에 천거된 사람은 모두 120인인데 등용된 사람은 28인이며, 남은 사람은 92인이다(別科被薦凡一百二十人, 登科二十八, 餘九十人)' 라고 하였고, 천거인 가운데 '도사 이세번은 학행이 있었고 지조를 지켰다(都事 李世蕃 有學行操守)'라는 기록이 전해온다. 『은봉전서(隱奉全書)』 <기묘유적(己卯遺蹟)>에도 기묘사화의 관련인물들에 대해 죄의 경중(輕重)을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사(都事) 이세번(李世蕃)'은 '보외(補外)', 즉 좌천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세번의 제주유배는 조선성리학의 정통 사상가 계보와 관련할 때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당한 질서와 계보를 일컬어 도통(道統)이라 한다. 한국 유학의 도통을 확립한 사람은 퇴계로서 그는 정몽주(鄭夢周)→우탁(禹倬)→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로 이어지는 도학연원(道學淵源)을 한국 성리학의 도통으로 확정하였다. 이세번은 김굉필의 사우문인록(師友門人錄)(「경현록(景賢錄)」下)에 조광조와 더불어 김굉필의 제자로 등재되어 있다.<sup>19)</sup> 즉 이세번은 김굉필에게 직접 영향을 받은 제1대 제

19) 양진권,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 - 道統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3, 1986, p225~232.

자(初傳)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세번의 도통의 영향력은 자신의 가통(家統)을 통해 제주에 전파한다.

이세번이 유배 중에 병에 걸리게 되자 부인과 두 아들이 간호를 위하여 적소에서 동거하게 되고, 적사 후에는 식구들이 아예 제주도에 정주(定住)함으로써 결국 이세번은 고부이씨 제주입도조(入島朝)가 된다.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여 당시 태학유생(太學儒生)으로 수학 중이던 아들 이충현(李忠賢)이 제주 교수로 천거되었고 후손들은 대대로 대정 향교의 훈도를 역임하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가통의 영향력은 주로 대정향교를 근간으로 하여 대정지방에서 문풍의 위세를 떨치게 된다. 이세번의 8세손 이구성(李九成)은 영조 14년(英祖; 1738)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田籍)과 예조 좌랑과 삼례도(參禮道) 찰방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이세번의 12세손이 되는 이재교(李在喬)는 근대학교의 시초가 되는 개성학교(開成學校)를 중문에 설립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말기 천주교도와의 갈등으로 난을 일으킨 이재수(李在秀)도 이세번의 후손이다. 그리고 4.3민중항쟁과 관련이 깊은 이승진(李承鎭)도 이세번의 후손으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민중들을 통솔하여 민중의 입장을 대변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그들의 교학적 흐름은 이세번이 제주에 유배 올 때 경서 등 많은 책을 가지고 들어와 제주 유생들에게 학문과 예절을 계몽했던 이세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도통의 사상적 세레 속에 가능했던 것이다.<sup>20)</sup>

제주도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통 성리학이 수용되기 힘든 구조였으나 이세번의 유배로 인해 도통의 계보가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도통의 사상은 이세번의 가족을 통해 가학적 전통으로 제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제주도의 문풍진작(文風振作)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20) 양진건, 위의 논문, 1986, p238.



#### 4) 조선전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조선전기는 '유배교육의 태동기(胎動期)'로써 조선시대 제주유배인들이 제주에 남긴 다양한 영향 중 교육적 활동을 처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조선전기 제주유배교육사에서 다루어진 충암 김정과 이세번의 교육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제주유배교육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배인의 입도를 통해 '도통(道通)'의 영향을 접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학 사상이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당한 질서와 계보를 일컬어 도통이라고 하는데 김정과 이세번은 모두 조광조와의 관계를 볼 때 직접적인 도통의 영향을 받은 유배인이다. 그들의 제주유배로 인해 제주에는 그동안 과거입격을 위한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성리학적 도리와 경학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왕도정치 실현을 위한 사회질서 회복 등이 언급되게 된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세번의 후손들이 지방에 터를 잡고 지방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킨 사실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이 주장하는 향촌 지지와 지방문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직접 실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제주의 무속신앙에 대한 유교적 비판이 처음으로 제기된 점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무속신앙과 유교문화가 병존(並存)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는 그가 제주의 미신과 무속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이를 교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제주에서는 무속신앙이 백성들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조차 없던 때였다. 그러나 김정의 입도와 그의 교육활동 등을 통해 무속신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주의 무속신앙이 여성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즉, 조선전기 다양한 교육 형태를 통해 제주의 남성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김정의 유배교육 이후 무속신앙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은 현저히 저하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유교식 체계(體系), 여성 사회에는 무속식 체계(體系)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충돌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외형적으로 교육의 이중문

화(二重文化) 구조(構造)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쌍방이 결합하여 독특한 교육 체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 된다.<sup>21)</sup> 현재까지도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신앙이 활발한 편이며 역시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로 유배인들을 통해 유교적 이념인 ‘충(忠)과 효(孝)’가 제주인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제주는 육지부 지역과는 달리 양반 사대부가문이나 지역, 그리고 학풍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도 육지부와 비교할 때 제주에서는 가문의 장손이나 장자의 역할이 매우 작는데 이는 유교 문화가 육지부에 비해 정착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이다. 조선전기에는 유교 교육이 정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제주인들은 유배인들을 통해 ‘충’과 ‘효’의 덕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직접 체험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상당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전기 유배인 김만희(金萬希), 한천(韓蕝), 이미(李美)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은 제주인에게 ‘충’의 이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의 ‘절명사(絶命辭)’는 제주인들에게 ‘효’의 정신을 각인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정은 제주도에서 사약을 받고도 얼굴빛도 변치 않았으며 술을 가져오게 하여 마신 다음, 형과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어 노모를 잘 봉양하도록 부탁하고, 절명사를 읊었다.

“외로운 땅에 던져서 외로운 혼이 되고, 어머니 혼자 버리고 天倫도 막혔구나, 이 세상 만나 내몸 죽으니 구름타고 天帝계신 곳에 들리어, 屈原따라 높이 거닐린다. 길고 어두운 밤 언제 아침이 되려나, 빛나는 붉은 마음 풀숲속에 묻으니, 당당하고 장한 뜻 꺾겼네, 아아 슬프구나! 千秋萬歲에 나의 哀痛함을 어떻게 감당하라.”<sup>22)</sup>

김정의 제주 이배(移配) 사유도 금산 유배 중에 노모를 만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김정은 유배생활 동안 늘 노모를 걱정하였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함을 한탄하는데 이러한 김정의 모습을 통해 제주인들은 ‘효’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제주에서 사사(賜死)되었기 때문에 제주의 식자층(識者層)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에게도

21) 양진건, 앞의 논문, 1991, p86, 참조.

22) 김태영, 「沖庵 金淨의 生涯와 思想」, 『湖西文化研究』 第13輯, 1995, p10. 재인용

그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2. 조선중기

### 1) 조선중기 제주교육의 특징

조선중기는 명종조(明宗朝; 1546)에서 숙종조(肅宗朝; 1720)에 걸친 기간이다. 이 시기 제주도에는 유배인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이 시기 봉당정치로 인한 상호간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다. 급증한 유배인들로 인해 제주도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심각한 질병과 기근에 허덕이던 제주인들 입장에서는 유배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육지로의 출륙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던 상황에서 유배인들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육지부의 문화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수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시기 제주도의 교육적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은 출륙억제정책(出陸抑制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중앙 정부에서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아 정책적으로 출륙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성종대(成宗代)에 이르러 질병과 기근 등으로 인한 도망 출륙자가 증가하게 되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세종조(世宗朝)에 6만이 넘었던 인구가 선조(宣祖) 초에는 약 2만 3천으로 크게 격감하였으며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런 사태를 중시, 난민들의 도외 출륙이산(出陸離散)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제주삼읍 사람으로 허가 없이 타지방으로 이주하는 자는 벌을 주고 원적(原籍)에 되돌리는 한편, 이런 제주인을 감싸준 자는 장(杖) 1백에 3천리(千里) 먼 곳으로 유배케 한다<sup>23)</sup>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출륙억제의 효과로 숙종조(肅宗朝)의 제주인구는 4만여명으로 선조 초에 비해 백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철종 원년(哲宗; 1850)에는 8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약 200여년 가까이 무리하게 지속된 출륙억제정책은 제주도의 고립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시기 성리학이 심화·발전하고 다른 지역의 문

23) 『大典會通』, 刑典..

화와 교육이 크게 번성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주도는 육지부에 배타적인 문화가 뿌리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시기 제주교육은 나름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주유배교육'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조선중기 제주유배인의 현황과 특징

### (1) 조선중기 제주유배인 현황

본 논문에서 다루는 조선중기는 명종조(明宗朝; 1546)부터 숙종조(肅宗朝; 1720)까지이다.

명종 2년(1547) 유희춘(柳希春)의 유배를 시작으로 63명이 이 시기에 유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기 제주유배인은 조선전기에 비해 급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봉당정치의 시작과 그에 대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조선중기의 제주유배인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조선중기 제주유배인 현황  
(明宗(1546) ~ 肅宗(1720))

| 연번 | 왕조      | 연도            | 유배인          | 유배기간      | 유배지역 | 비고       |
|----|---------|---------------|--------------|-----------|------|----------|
| 1  | 명종      | 2년(1547)      | 유희춘<br>(柳希春) | 20년<br>이상 | 미상   |          |
| 2  |         | 10년(1555)     | 이희손<br>(李希孫) | 1년 미만     | 미상   |          |
| 3  |         | 20년(1565)     | 보우<br>(普雨)   | 1년 미만     | 미상   |          |
| 4  | 광해<br>군 | 즉위년<br>(1608) | 이홍노<br>(李弘老) | 1년 미만     | 대정현  |          |
| 5  |         | 3년(1612)      | 신희업<br>(辛喜業) | 미상        | 미상   |          |
| 6  |         | 4년(1612)      | 송상인<br>(宋象仁) | 11년       | 미상   |          |
| 7  |         | 4년(1612)      | 이태경<br>(李泰慶) | 1년 미만     | 미상   |          |
| 8  |         | 6년(1614)      | 정온<br>(鄭蘊)   | 9년        | 대정현  | 『동계집』 저술 |
| 9  |         | 6년(1614)      | 김언춘<br>(金彦春) | 1년 미만     | 대정현  |          |

|    |    |           |                           |       |     |                                |
|----|----|-----------|---------------------------|-------|-----|--------------------------------|
| 10 |    | 6년(1614)  | 김덕룡<br>(金德龍)              | 1년 미만 | 정의현 |                                |
| 11 |    | 1년(1609)  | 이정경<br>(李禎慶)              | 6년    | 정의현 |                                |
| 12 |    | 10년(1618) | 김제남부인<br>노씨<br>(金梯男夫人 盧氏) | 4년~5년 | 제주목 |                                |
| 13 |    | 10년(1618) | 이익<br>(李瀾)                | 4년~5년 | 대정현 | 경주이씨<br>국당공파<br>입도조(入島朝)       |
| 14 |    | 11년(1619) | 조직<br>(趙稷)                | 미상    | 대정현 |                                |
| 15 |    | 12년(1620) | 원종<br>(元棕)                | 2년~3년 | 정의현 |                                |
| 16 | 인조 | 원년(1623)  | 서신<br>(徐旻)                | 미상    | 정의현 |                                |
| 17 |    | 원년(1623)  | 박승조<br>(朴承祖)              | 13년   | 제주목 |                                |
| 18 |    | 6년(1628)  | 인성군부인 윤씨<br>(仁城君夫人 尹氏)    | 7년    | 정의현 |                                |
| 19 |    | 6년(1628)  | 이길<br>(李佶)                | 7년    | 정의현 |                                |
| 20 |    | 6년(1628)  | 이억<br>(李億)                | 7년    | 정의현 |                                |
| 21 |    | 6년(1628)  | 이건<br>(李健)                | 7년    | 정의현 | <제주풍토기><br>저술                  |
| 22 |    | 6년(1628)  | 인성군 딸<br>(仁城君 女)          | 7년    | 정의현 |                                |
| 23 |    | 15년(1637) | 광해군<br>(光海君)              | 4년~5년 | 제주  |                                |
| 24 |    | 20년(1642) | 윤승겸<br>(尹承謙)              | 미상    | 미상  |                                |
| 25 |    | 20년(1642) | 이진영<br>(李晋英)              | 미상    | 미상  |                                |
| 26 |    | 21년(1643) | 신득연<br>(申得淵)              | 4년~5년 | 미상  |                                |
| 27 |    | 22년(1644) | 이덕인<br>(李德仁)              | 1년 미만 | 대정현 | 전주이씨<br>계성군파<br>입도조(入島朝)의<br>부 |

|    |    |           |              |       |     |                         |
|----|----|-----------|--------------|-------|-----|-------------------------|
| 28 |    | 23년(1645) | 이경여<br>(李敬輿) | 1년 미만 | 미상  |                         |
| 29 |    | 23년(1645) | 강문성<br>(姜文星) | 미상    | 미상  |                         |
| 30 |    | 24년(1646) | 홍무적<br>(洪茂績) | 3년    | 정의현 |                         |
| 31 |    | 25년(1647) | 이석철<br>(李石鐵) | 1년 미만 | 미상  |                         |
| 32 |    | 25년(1647) | 이석린<br>(李石麟) | 1년~2년 | 미상  |                         |
| 33 |    | 25년(1647) | 이석건<br>(李石堅) | 1년~2년 | 미상  |                         |
| 34 | 효종 | 4년(1653)  | 김록<br>(金錄)   | 미상    | 대정현 |                         |
| 35 |    | 4년(1653)  | 골계선<br>(骨繼善) | 미상    | 정의현 |                         |
| 36 | 현종 | 5년(1664)  | 송지렴<br>(宋之濂) | 2년~3년 | 정의현 |                         |
| 37 |    | 15년(1674) | 신명규<br>(申命奎) | 6년    | 대정현 | 『목재기문록』<br>저술           |
| 38 |    | 15년(1674) | 이정기<br>(李鼎基) | 8년    | 정의현 |                         |
| 39 |    | -         | 이지달<br>(李枝達) | 미상    | 대정현 | 수안이씨<br>입도조(入島朝)의<br>조부 |
| 40 | 숙종 | 1년(1675)  | 유필명<br>(柳弼明) | 미상    | 정의현 |                         |
| 41 |    | 5년(1676)  | 임창군<br>(臨昌君) | 3년~4년 | 제주목 |                         |
| 42 |    | 5년(1676)  | 임해군<br>(臨海君) | 3년~4년 | 정의현 |                         |
| 43 |    | 6년(1680)  | 유혁연<br>(柳赫然) | 1년 미만 | 대정현 |                         |
| 44 |    | 11년(1685) | 김삼달<br>(金三達) | 미상    | 제주목 |                         |
| 45 |    | 15년(1689) | 송시열<br>(宋時烈) | 1년 미만 | 제주목 |                         |



|    |           |              |       |     |                              |
|----|-----------|--------------|-------|-----|------------------------------|
| 46 | 15년(1689) | 김예보<br>(金禮寶) | 미상    | 미상  | 김해김씨 양의공<br>김경서파<br>입도조(入島朝) |
| 47 | 15년(1689) | 김진구<br>(金鎭龜) | 4년~5년 | 제주목 |                              |
| 48 | 16년(1690) | 이진상<br>(李震尙) | 미상    | 미상  |                              |
| 49 | 20년(1694) | 민암<br>(閔黯)   | 1년 미만 | 대정현 |                              |
| 50 | 20년(1694) | 김덕원<br>(金德遠) | 2년~3년 | 미상  |                              |
| 51 | 20년(1694) | 장희재<br>(張希載) | 7년    | 대정현 |                              |
| 52 | 20년(1694) | 송상주<br>(宋尙州) | 8년    | 대정현 |                              |
| 53 | 22년(1696) | 이현명<br>(李顯命) | 2년~3년 | 미상  |                              |
| 54 | 26년(1700) | 이동설<br>(李東高) | 미상    | 대정현 |                              |
| 55 | 26년(1700) | 신우석<br>(申遇石) | 미상    | 대정현 |                              |
| 56 | 26년(1700) | 김준원<br>(金俊元) | 미상    | 대정현 |                              |
| 57 | 26년(1700) | 박중경<br>(朴重慶) | 미상    | 대정현 |                              |
| 58 | 27년(1701) | 유항<br>(柳抗)   | 7년    | 미상  |                              |
| 59 | 28년(1702) | 오시복<br>(吳始復) | 10년   | 대정현 |                              |
| 60 | 29년(1703) | 송성<br>(宋晟)   | 미상    | 제주목 |                              |
| 61 | 29년(1703) | 오석하<br>(吳碩夏) | 미상    | 대정현 |                              |
| 62 | 29년(1703) | 민시준<br>(閔時俊) | 미상    | 정의현 |                              |
| 63 | 32년(1706) | 김춘택<br>(金春澤) | 6년~7년 | 제주목 |                              |

## (2) 조선중기 제주유배인 특징

조선중기 많은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광해군(光海君)과 관련된 내용이다. 광해군 자신 역시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江華島)에서 제주로 이배(移配)되어 유배 생활을 하지만 광해군 때문에 유배온 사람들이 매우 많다. 광해군과 관련하여 이홍로(李弘老)를 시작으로 신희업(辛喜業), 송상인(宋象仁), 정온(鄭蘊), 이익(李瀾) 등이 모두 제주로 유배된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仁祖)는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고자 많은 유배인을 제주로 보낸다. 이괄(李适)의 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인성군(仁城君)은 사사(賜死)되고 인성군 가족 5명이 정의현으로 유배되었으며, 인조(仁祖)의 장남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세 아들 석철(石鐵), 석린(石麟), 석견(石堅) 3형제 역시 제주로 유배된다.

숙종(肅宗)이 집권한 이후에는 세 번에 걸친 환국(換局)이 일어나는데 경신환국(庚申換局), 기사환국(己巳換局), 갑술환국(甲戌換局)이 그것이다. 서인과 남인이 치열한 붕당정치를 벌였고 왕권강화를 위해 숙종은 모든 정치세력을 일거에 교체하는 숙청을 단행한다. 경신환국의 유혁연(柳赫然)을 시작으로 기사환국과 관련하여 송시열(宋時烈), 김예보(金禮寶), 김진구(金鎭龜) 등이 유배를 오게 된다. 그리고 갑술환국으로 민암(閔黯), 김덕원(金德遠), 장희재(張希載)가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된다.

이 시기 제주유배인의 특징은 광해군과 관련된 유배인이 많다는 점과 역모사건 관련, 그리고 왕족 유배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붕당정치로 인한 갈등의 산물이며 붕당정치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중앙 관료를 역임했던 인물들이 대거 제주로 유배되면서 제주유배교육이 활기를 띠게 된다.

제주유배교육사의 중요한 인물들도 이 시기에 등장하는데 조선중기 제주유배교육에서 살펴볼 인물들은 정온(鄭蘊), 이익(李瀾), 신명규(申命奎), 김진구(金鎭龜), 김춘택(金春澤) 등이다.

### 3) 조선중기 제주유배교육

#### (1) 정은(鄭蘊)(1569~1641)

정은의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동계(桐溪)이다. 선조(宣祖) 39년(1601)에 진사가 되고, 광해군(光海君) 2년(1610)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시강원겸설서·사간원정언을 역임하였다. 임해군옥사에 대해 전은설(全恩說)을 주장했고, 영창대군이 강화부사 정항(鄭沆)에 의해서 피살되자 격렬한 상소를 올려 정항의 처벌과 당시 일어나고 있던 폐모론(廢母論)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광해군은 격분하여 제주도에 위리안치하도록 하였다. 광해군 6년(1614)에 제주에 유배되어 인조반정까지 10여년 간 지내게 된다.

정은은 처음에 정인홍(鄭仁弘)의 문인이 됨으로써 남명(南冥)의 사상적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정인홍은 대북파의 실세가 된다. 정은 역시 광해군 즉위 이후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북파가 광해군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것과 대비적으로 정은은 남명의 '경의지학(敬義之學대)'을 실천하고자 광해군에게 비판적 상소를 올리게 된다. 그런 연유로 정은은 스스로 제자의 적(籍)을 없애고 인조반정 후 남인이 된다.

정은의 사상적 역량이나 그의 위치로 볼 때 유배생활 10여년 동안 제주에서 많은 유배교육을 행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유배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찾기 힘들다. 그러한 이유는 다른 유배인과 달리 정은은 비교적 철저하게 위리안치 생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은이 제주에서 지은 '정찬보의 만월당에 대한 기문(鄭贊甫滿月堂記)'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죄인이 되고부터 뻣뻣한 가시나무로 둘러치고 빗장을 높이 걸어 가두었으니, 보이는 것은 한 자 남짓한 하늘에 불과하고 걷는 곳도 한 자 남짓한 땅에 불과하다”<sup>24)</sup>

또한 '죽장명의 서문(竹杖銘 序)'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24) 양진건, 『제주유배문학자료집(1)』,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p.69. 재인용.

“내가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지 지금 4년이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 보니 두 다리가 딱딱하여 예사로 측간에 갈 때에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sup>25)</sup>

이러한 정온의 언급으로 보아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했던 다른 유배인들과는 달리 정온은 위리안치 형을 정확하게 지킨 것으로 보인다.

정온은 제주유배생활동안 자기교육활동으로서 독서에 주력했다. 그것은 당시 제주목사였던 김정원(金廷元)의 배려 덕이기도 했다.

대정현 동문 안에 위리된 내력을 적은 기문에서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태수가 나를 위하여 서실(書室) 두 칸을 만들어 주었는데,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고 있다. …(중략) 또 방 동쪽 벽 시창(矢窓) 아래에 2층으로 된 서가(書架)를 두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수백여 권을 가지런하게 잘 정돈해 두었다. 내가 총관(聰冠)을 착용하고 도의(道衣)를 입고 그 안에서 거처하면서 한가롭게 책을 보다가 졸리면 턱을 괴고 편한 자세로 조용히 쉬곤 한다.”<sup>26)</sup>

이 밖에도 정온의 독서활동의 기록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정온은 먼저 유배와 있던 송상인(宋象仁), 이익(李瀾) 등과도 시문 교류를 하였다.

당시에 송상인(宋象仁), 이익(李瀾)도 또한 언사(言事)로 이곳으로 찬축되었는데, 송상인은 바둑을 배우고 이익은 금(琴)을 연주하였다. 선생이 독서한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 물었는데, 선생이 답하는 시를 남겼다.<sup>27)</sup>

정온은 유배생활동안 다양한 글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의 사상을 남겼는데 『덕변록(德辨錄)』이나 제주인에게 써준 『읍선생록(邑先生錄)』의 발(跋) 등이 있다.

정온이 제주유림들과 직접적인 사제관계나 교류를 맺은 내용은 찾기 힘들지만 그가 제주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통해 제주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 양진건, 앞의 책, 2008, p.73. 재인용.

26) 양진건, 앞의 책, 2008, p.47~48. 재인용.

27) 鄭蘊, 『桐溪集』附錄 券4, 許穆, 「文簡公桐溪先生年譜」, 「時宋象仁, 李瀾. 亦以言事被竄. 而宋象仁學棋. 李瀾彈琴. 聞先生讀書. 以書問之. 先生有謝詩云」

문간공 동계 선생 연보에는 정온이 해배되어 떠날 때의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대정현의 백성들이 처음에 장유(長幼)의 차례와 상하(上下)의 구분이 없었는데, 선생이 구별하여 늙은이가 먼저 하고 젊은이가 뒤에 하게 하고, 이른바 향유사(鄉有司)라는 자를 대우하여 하리(下吏)와는 그 자리를 따로 하게 하였다. 또 연소한 자를 가려서 문자를 가르치고 인륜을 설명하니, 이로부터 장유와 상하가 조금씩 조리가 있게 되었다. 또 그동안의 자목(字牧)들이 모두 무인(武人)인지라 날마다 백성을 몰아서 사냥에 따라다니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살아갈 줄 몰랐다. 이에 선생이 읍재(邑宰)에게 말하여, 사냥을 때에 맞게 하고 전묘(田畝)로 돌아가 농사짓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선생의 은혜를 우러러보았다. 이번에 돌아가기에 이르러 울면서 따르기를 친척이 떠나는 것처럼 하였다.”<sup>28)</sup>

위의 기사로 볼 때 동계 정온은 제주에서 나름의 유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온은 비교적 정확하게 위리안치 생활을 하였으며 다른 유배인들은 당시 제주의 유림들과의 사우강습을 통한 학적관계를 맺었으나 정온은 연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그와의 제자관계 등이 자료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주도에서 정온의 유배교육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그가 제주오현(濟州五賢)의 한 사람으로 배향된 것이다. 정온은 현종 10년(1669) 김상헌과 함께 배향된다. 서원 배향은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듯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뒤의 학자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감발흥기(感發興起)케 하려는 교육적 의미인 것이다.<sup>29)</sup>

정온은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때 절의를 지킨 인물로 지목되어 이조참판 등의 요직을 거친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행재소(行在所)로 왕을 호종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이조참판으로서 명나라와 조선과의 의리를 내세워 화이(和議) 주장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 후 강화도가 함락되고 항복이 결정되자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수치를 참을 수 없다고 하며 칼로 자결하였으나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 뒤 관직을 단념하고 덕유산에 들어가 조를 심어 생계를 자급하다가 죽었다. 숙종 때 절의를 높이 평가하여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28) 鄭蘊, 『桐溪集』附錄 券4, 許穆 「文簡公桐溪先生年譜」 「靜民初無長幼之序。上下之分。先生區而別之。老者先之。少者後之。待其所謂鄉有司者。與下吏別其座。又擇年少。教以文字。陳以人倫。自是。長幼上下稍有條理。且前後字牧皆武人。日驅而從之於畋獵之間。民不知耕稼以爲生。先生言于邑宰。時其畋獵。歸之田畝。民皆仰先生之賜。及北歸。啼泣而隨之。如離親戚。」

29) 양진건, 「동계(桐溪) 정온(鄭蘊) 서원배향(書院配享)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0, p139.

이러한 정온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제주인에게는 큰 감동이었으며 오현으로 섬길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조 23년(1799)에 대정현감 부종인(夫宗仁)은 동계의 유허지에 서당을 세워 그를 흠모한다. 또 현종 8년(1842) 이원조(李源祚) 목사가 「정온적거유허비(謫居遺墟碑)」를 세우고, 송죽사(松竹司)를 창건, 동계를 봉향하였으며 추사 김정희가 편액(扁額)하였다.

이렇듯 동계정온의 제주유배교육은 당시의 단편적인 만남에 대한 기록만 존재하지 않을 뿐 그의 정신과 사상을 추모하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이익(李瀾)(1579~1624)

이익은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형여(洞如), 호는 간옹(艮翁)·옥포(玉浦)이다. 광해군(光海君) 4년(1612)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해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곧 검열에 등용되고, 1615년 전직에 승직되었다. 그 뒤 사서·정언·헌납·지평·장령·예조정랑·병조정랑을 거쳐 직장을 역임하였다. 1618년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려는 논의가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심한 문초를 받았으나 끝내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행히 기자현(奇自獻)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제주에 안치되었다. 인조반정(1623)이 일어나자 다시 사예와 장령 등에 임용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원래 퇴계의 수제자인 정구(鄭述)의 종유자(從遊者)로 퇴계 → 정구로 계승되는 영남학파의 전통에 닿아 있는 학자이다. 그가 안치되었을 때 정온(鄭蘊)도 함께 유배되었으므로 두 사람은 동병상련의 정으로 시문을 교류하며 격려할 수 있었다. 정온과 이익 모두 영남학파의 기절(氣節)과 의리를 숭상하고 추종하였기 왕에게 충언을 하고 유배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제주인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본보기였다고 할 수 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에 대해 비판하고 성리학의 기본 이념인 '효'를 실천하도록 왕에게 간언하였기 때문이다.

이익은 그 당시 제주유배인들 중에서는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는 문하생을

두었는데, 김진용(金晉鎔)과 고흥진(高弘進), 문영후(文榮後), 문징후(文徵後)가 있다.

이익의 제자 김진용은 평생 제주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김진용은 인조13년(1635) 진사시에 합격하여 인조 21년(1643) 숙녕전참봉에 천거되었으나 고향에서 후생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이를 사양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효종 10년(1679)에 당시 제주목사 이회(李禴)에게 건의하여 제주교육의 진흥을 위해 장수당(藏修堂)을 건립하였다. 장수당은 12칸으로, 35명의 학생이 수학하였으며, 김진용은 장수당에 은거하면서 삼읍(三邑: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학생들을 훈학하는 데 힘썼다.<sup>30)</sup>

또한 고흥진은 이익에게 사사한 후 효종(孝宗) 때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진(李元鎭)의 도움으로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문하생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원진이 『탐라지(耽羅志)』를 완간할 때 감교(監校)를 맡았는데 실제로 고흥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현종 5년(1664) 제주별견시재어사(別遣試才御使) 윤심이 내도하여 시취할 때 65세로 응시하여 문영후(文榮後), 문징후(文徵後) 형제와 함께 급제한다.<sup>31)</sup>

또한 이익은 제주유배 당시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 딸과 혼인해 아들을 낳았다. 그가 비록 1623년 해배되어 돌아갔으나 유배시절 자식이 있음을 밝히었고 그의 아들 인제(仁濟)는 훗날 훈련원 판관에 오르기도 한다.

이렇듯 간옹 이익의 제자들은 물론 그가 남긴 후손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제주의 교육에 힘씀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옹 이익의 유배교육은 제주 교육의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

30) 제주문화원, 『제주사인명사전』, 김찬흡 編著, 2002, p175 참조.

31) 제주문화원, 위의 책, p57 참조.

### (3) 신명규(申命圭) (1618~1688)

신명규의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자는 원서(元瑞) 또는 군서(君瑞)이고, 호는 묵재(默齋) 또는 적안(適安)이다. 현종(顯宗) 3년(1662)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665년 지평(持平)·장령(掌令)을 지내고 이듬해인 1666년에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바 있으며, 이어 정언(正言)·헌납(獻納) 등을 거쳐 1667년 남해로 유배되었다. 1669년 집의에 이르고, 이어 사간·부수찬 등 주로 대간을 역임하였다.

신명규는 숙종 15년(1674) 석역(石役)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대정현으로 유배되었다. 신명규는 대정현에 적거하면서 지방민 자제들을 6년 동안이나 가르쳤다. 그 때문에 이 지방에 서울의 학풍과 예절이 전수될 수 있었으며, 또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의 아들 신임도 관친(觀親)하기 위해 5년이나 이 지방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자가 이 지방의 학문 발전에 공헌한 점도 많았다고 할 것이다. 지방민 자제 중에는 정의현 출신의 오정빈(吳廷賓)이라는 소년도 있었다. 오정빈은 뒤에 스승 신명규 부자를 따라 서울에 까지 가서 유학하였으며, 후일 문과에 급제하기도 한다. 이는 그 기초가 모두 적거한 신명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32)</sup> 후에 신임 역시 84세의 나이로(제주유배인 가운데 최고령) 제주에 유배를 오기도 한다.

신임이 쓴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오정빈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앞부분은 생략함) 曾祖의 이름은 守幹이고, 조의 이름은 德立이다.

考의 이름은 峴이고, 배위는 같은 縣 사람으로 성은 모, 이름은 모의 딸이다. 현종 4년(1663,癸卯) 모월 모일 干支에 군을 낳았는데, <자라면서> 몸가짐과 놀이가 보통 아이와 달랐다. 오씨는 진실로 동방의 大姓으로, 섬 안에서는 모두 土族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을묘년(숙종 원년,1675) 여름에 바다를 건너 先君子의 謫所가 있는 대정현 村舍에 따라와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동쪽으로부터 와서 자그마한 명함을 내주며 ‘旌義縣의 吳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체로 海中의 호걸스런 선비였다.(오정빈의 부친인 吳峴) 그가 요청하는 것은 ‘본인의 所生인 이 아이가 지금 13살이 되었는데, 지능이 보잘 것 없어 經書와 史書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친 바다 안(제주도를 뜻함)에서는 건문이 적어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고집이 셉니다. <슬하에> 거두어서 인도

32) 고창석, 「조선 후기 萬頃縣監을 지낸 제주인 吳廷賓」, 『한국인물사연구』 12호, 2009, p265. 재인용



하고 도와주어 재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진지하여, 내가 사양하려 하여도 사양 할 수가 없었다. 그 아이가 바로 뫼興淑(이름은 廷賓)이다. 그대로 머물면서 경서를 강론하는데 참여하였는데, 총명하고 근신하였으며 재능과 행실이 모두 뛰어났다. 가정의 훈육에서 터득한 것이 그렇게 만들었다.

힘써 노력하며 六藝를 배웠는데, 겨우 5년 만에 시나 글을 쓰는 재능이 날로 더욱 진전되었다. 선군자께서는 자못 이름을 떨칠 것을 기대하며 字를 지어주었다.

庚申年(숙종 6년, 1680, 18세)에 君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바다를 건너 서울에 유학하였다. 거친 옷과 맛있는 음식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서 학업을 닦았다. 이리하여 詩로 정묘년(숙종 13년, 1687, 25세)의 司馬試에 합격하고 귀향하여 양친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某年에는 아버지의 喪을 당하였는데, 삼년상을 마치고 복을 벗은 뒤에도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偏母를 봉양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유학하였는데, 이 때 서울의 많은 인사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더불어 교류하였다. 모년에는 다시 제주로 들어왔다.<sup>33)</sup>

위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오정빈의 아버지가 직접 유배인들에게 자식의 교육을 부탁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교육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배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듯 구체적으로 교육을 부탁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문헌은 거의 없다. 위의 문헌으로 제주인들이 유배인들을 스승으로 모시려 했었던 풍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배인 역시 오정빈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배교육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 (4) 김진구(金鎭龜)(1651~1704) / 김춘택(金春澤)(1670~1717)

김진구는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수보(守甫)이고 호는 만구와(晩求窩)이다. 168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사관이 되어 『현종실록(顯宗實錄)』 찬수에 참여하였다. 이어 정언(正言)·헌납(獻納)·교리(校理)·응교(應敎)·집의(執義) 등을 역임하였다. 1684년 경상감사가 되었으며 이어 승지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에 의하여 남인정권이 들어서자 김석주(金錫胄)와 함께 가혹한 수법으로 남인을 숙청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김진구(金鎭龜)는 39세에 유배를 왔기 때문에 가장 훈학적(訓學的) 열의가 왕성

33) 고창석, 앞의 논문, p267. 재인용

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제주에 적거하는 동안 제주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쳤으며 그가 지도한 제자들이 뒷날 과거에 급제하여 그의 교육에 보답하였다. 그의 제자는 오정빈(吳廷賓)과 고만첨(高萬瞻), 이중발(李重發), 정창선(鄭敞選), 양수영(梁秀瀛), 김덕항(金德恒), 백희민(白喜敏) 등이 있다.

이 같은 김진구와 제주인과의 교육관계는 제주도에 경사학풍(京師學風)을 전수 시킴과 동시에 제주인들의 학풍을 일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주인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교육의 결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제주도에 서 유배인과의 학적 관계를 쌓으려는 풍조는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다.

김진구의 아들인 김춘택은 아버지가 유배되었던 당시 아버지를 뵈러 숙종 17년(1691)에 제주를 다녀간 후 16년만에 유배인이 되어 다시 제주를 찾게 된다.

김춘택은 1701년 소론의 탄핵을 받아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희빈장씨(禧嬪張氏)의 소생인 세자를 모해하였다는 혐의를 입어 서울로 잡혀가 심문을 받고, 1706년 제주로 옮겨졌다.

김춘택은 아버지의 제자들과 교류를 갖고 그들의 학문적 진전을 도왔다. 그 중 제주학인 오정빈, 고만첨, 정창선이 과거에 급제한다.

제주 어사(濟州御史) 이해조(李海朝)가 입래(立來)하였다. 예문 제학(藝文提學) 최석항(崔錫恒)을 명초(命招)하여 시권(試券)을 과차(科次)하게 하고, 정창선(鄭敞選)·오정빈(吳廷賓)·고만첨(高萬瞻) 세 사람에게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sup>34)</sup>

이들이 과거에 응시하러 갈 때 김춘택은 그들에게 응원의 글을 지어 보낸다.<sup>35)</sup> 그 글에는 아버지 김진구에 의해 세 사람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에서 길이 이름을 떨칠 것이며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유배지에서의 일상을 “모든 물산이 빈곤한 지방이었지만 굴림서원에는 유생과 지방자제들이 모여 와서 독서와 음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벗하여 시서(詩書)로서 즐겁게 지냈다”<sup>36)</sup> 라고 적고 있다.

34) 『肅宗實錄』, 45卷, 33年 46年 1月 21日 乙亥 「乙亥濟州御史李海朝入來。命招藝文提學崔錫恒, 科次試券, 賜鄭敞選、吳廷賓、高萬瞻三人第。」

35) 金春澤 「送高萬秋赴殿試序」, 「送吳興淑赴殿試序」, 「送鄭生敞遠赴殿試序」, 『北軒集』.

36) 金春澤 『北軒集』 囚海錄.

이렇듯 김진구와 김춘택 부자는 2대에 걸쳐 제주인들을 교육했으며 기록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가르치고 교유(交遊)한 제주유림들이 과거에 나아가고 성공함을 기뻐하며 뿌듯해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세번과 간옹 이익은 후손들을 통해 제주에 가학적 전통을 남겼으며 김진구와 김춘택은 2대에 걸쳐 자신들의 학문을 제주에 전파하여 제주의 학풍을 풍성하도록 했으니 제주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입은 교육적 은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4) 조선중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조선중기는 '유배교육의 성숙기(成熟期)'로써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유배를 왔으며 또한 많은 유배인들이 교육을 통해 제주유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조선중기의 유배교육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주유배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시기는 유배교육으로 인해 제주교육이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다.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출륙억제정책으로 인해 제주교육이 고립 봉쇄된 시기임에도 유배교육으로 인해 교육적 활동이 상당부분 보상받게 되는 시기이다. 조선 중기 유배교육으로 인해 제주교육은 오히려 활성화 되는데 그것은 제주인들의 문과합격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4> 제주도 문과 합격자 분류<sup>37)</sup>

| 시기            | 1392~<br>1450 | 1451~<br>1500 | 1501~<br>1550 | 1551~<br>1600 | 1601~<br>1650 | 1651~<br>1700        | 1701~<br>1750 | 1751~<br>1800 | 1801~<br>1850 | 1851<br>이후 | 총합 |
|---------------|---------------|---------------|---------------|---------------|---------------|----------------------|---------------|---------------|---------------|------------|----|
| 합격<br>자수      | 1             | 2             | -             | -             | 1             | 10                   | 11            | 16            | 5             | 12         | 58 |
| 주요<br>유배<br>인 | -             | -             | -             |               | 이익<br>(정은)    | 신명규,<br>송시열,<br>김진구, | (김춘택)         | -             | 김정희           | -          | -  |

(자료: 『조선왕조실록』, 『제주유림유백년사』 참조.)

※ 정은, 김춘택 추가.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중기(1546~1720) 유배인들의 교육 이후 제주의 문과 합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한다. 간옹 이익의 제자 고흥진과 김진용, 문영후, 문징후 등이 문과에 급제하고 그의 아들인 인제가 훈련원 관관에 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신명규와 신임의 가르침을 받은 오정빈이 문과에 합격하여 만경현령(萬頃縣令)을 지내게 된다. 김진구와 김춘택의 제자 정창선, 고만첨 등도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중기 유배교육을 통해 많은 제주유림들이 중앙 관료로 입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7)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53.

다음으로 조선중기 유배교육을 통한 중앙의 다양한 학풍이 제주에 소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는 여러 이유로 학풍이라 일컬어 질 수 있는 사상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제주 유림들은 유배인을 통해 유학을 접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상을 전개해 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다양한 학파의 유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에서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영향을 모두 입게 된다. 우선 김진구는 왕성한 사제관계 형성 등으로 제주의 학풍을 기호학파류로 편성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중발이나 고만침, 오정빈의 가통은 제주의 가장 굵은 학맥들인데 이들 모두가 기호학파류의 김만기 영향권 아래 놓여 있고 또한 조선전기 유배인 이세번의 가통 역시 이세번이 기호지방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기호학파의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그러나 퇴계학파로 대별되는 영남학파의 영향 또한 작지 않게 나타난다. 이익의 학문적 분위기는 이황 → 정구 → 이익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영남학파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익의 제자인 고흥진이나 김진용의 학문적 분위기 그리고 이중발로 승계되는 그의 가통은 제주에서 영남학파의 풍토를 전파시키는 계기가 된다.<sup>39)</sup>

이렇듯 제주에서는 유배인들을 통해 조선시대 대표적 학파인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사조를 모두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배교육으로 인해 형성된 제주교육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

38) 양진건, 앞의 논문, 1986, p241.

39) 양진건, 앞의 논문, 1986, p241~242.

### 3. 조선후기

#### 1) 조선후기 제주교육의 특징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선후기는 경종(景宗; 1721)에서 고종(高宗; 1896)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제주인들의 삶이 매우 척박해진다. 세도정치(勢道政治)에 의해 국가의 율(律)과 정당성은 무너지고 거듭된 재난으로 국가의 재정은 위축되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다. 이런 와중에 삼정의 문란과 세정의 불공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렇듯 삶이 힘겨운 가운데도 백성들의 의식은 각성하게 되니 조선후기 전국적으로 민란이 발생하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사상적으로도 조선후기는 기존의 성리학이 이념적 사유만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실학이 대두되어 크게 각광받게 된다. 실학은 성리학적 관념성과 경직성을 비판하려는 사상적 반정운동(反正運動)으로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 태도를 강조하게 된다. 실학사상이 제주도에 소개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배인 김정희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제주교육이 김정희의 '유배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구체적 내용은 김정희와의 사우강습(師友講習)을 통해 여러 제주인들이 문화운동으로 제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른바 위항문화운동(委巷文化運動)<sup>40)</sup>이라 할 있는데 이는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하층계층에 의해 주도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제주의 위항문화운동은 당대 문명을 날리던 김정희와 그를 배경으로 했던 여러 문인들이 제주필원(濟州筆苑)으로 명성을 떨치고 전각운동(篆刻運動)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선말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제주인들의 문화운동은 출륙억제정책(出陸抑制政策)이나 한품서용(限品敍用) 등의 국제(國制)에 묶여 자신의 포부와 경륜을 펴나갈 통로를 잃은 채 고착된 신분의 벽을 깨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종래 귀족문화였던 한문문화의 소단(騷壇)에 진출하여 위항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40) 양진건, 앞의 책, 2001, p118.

상대적인 신분상승과 제도적 금압정책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효과를 꾀하였던 것이다.<sup>41)</sup>

다음으로 조선후기 제주 교육의 특징은 위정척사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실학사상이 제주도로 유입되고 또한 20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출륙금지가 해제되자 많은 제주인들은 육지로 출륙하여 여러 대학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그들은 특히 기호학과와 많은 교류를 하고 직접수업(直接修業)을 통해 학문을 전수받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침으로써 제주도에 이전과는 다른 교육적 활기를 띠게 된다. 이전에는 중앙의 대학자의 사우록(師友錄)이나 제자록(弟子錄)에 제주인들이 기록되는 예가 드물었으나 출륙금지 정책이 해제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우록이나 제자록에 등재되는 것이 그 실례이다.<sup>42)</sup>

조선후기 실학사상이 무르익고 사회가 변혁으로 꿈틀거릴 때 조선은 여러 병란(兵亂)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서양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선을 둘러싼 정치지형은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 때 유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척왜·척양을 주장하며 조선의 보위를 지키고자 하는 척사위정(斥邪爲政)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이러한 척사사상의 이론적 기수는 이항로(李恒老 : 1792~1868)와 기정진(奇正鎭 : 1789~1876)으로서 그들의 척사논의에서 정통적으로 나타나는 철학적 기초는 강력한 주리론(主理論 또는 唯理論)인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조선시대 정치체제의 대외관계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sup>43)</sup>

조선시대의 체제보위라는 실천목표와 연결되어 있던 척사논의는 이존기비(理尊氣卑)의 논리에서 조선시대의 체제와 문화를 이(理)로 보고 외세를 기(氣)로 보는 자존적 의식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기정진의 유리일원론적(唯理一元論的) 척사(斥邪) 논의를 그 뒤 사상사적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이항로(李恒老)의 주리이원론적(主理二元論的) 척사(斥邪) 논의는 그의 문인들에 의해 이어지며 특히 최익현(崔益鉉)에 의해 척사운동으로 확산되었다.<sup>44)</sup>

이러한 가운데 척사위정의 거두 면암 최익현 선생이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되고,

41) 양진건, 앞의 책, 2001, p.118 참조.

42) 양진건, 앞의 책, 2001, p.122.

43) 양진건, 앞의 책, 2001, p.122.

44) 양진건, 앞의 책, 2001, p.122.

제주의 여러 유림들과의 교유(交遊)를 통해 제주에서도 척사위정 사상이 행동지향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선후기 제주교육과 유배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제주교육의 특징이다.



## 2) 조선후기 제주유배인의 현황 및 특징

### (1) 조선후기 제주유배인 현황

경종조(景宗朝; 1721)부터 고종조(高宗朝; 1896)까지의 제주유배인 수는 112명이다. 조선후기는 조선시기 전체 유배인 수 중 50% 가까이 집중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경종(景宗) 시기의 임인무옥(壬寅誣獄) 관련 유배인과 영·정조(英·正祖) 즉위반대 관련 유배인, 탕평정치 반대 유배인등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또한 순조(純祖) 즉위 이후에는 세도정치와 관련해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되고, 고종(高宗) 시기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문제로 제주유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조선후기 제주유배인 현황은 다음 <표5>과 같다.

<표 5> 조선후기 제주유배인 현황  
(景宗(1721) ~ 高宗(1896))

| 연번 | 왕조 | 연도       | 유배인          | 유배기간  | 유배지역 | 비고 |
|----|----|----------|--------------|-------|------|----|
| 1  | 경종 | 2년(1722) | 조성복<br>(趙聖復) | 1년 미만 | 정의현  |    |
| 2  |    | 2년(1722) | 신임<br>(申鉞)   | 3년~4년 | 대정현  |    |
| 3  |    | 2년(1722) | 김수천<br>(金壽天) | 2년~3년 | 제주목  |    |
| 4  |    | 2년(1722) | 학손<br>(鶴孫)   | 2년~3년 | 대정현  |    |
| 5  |    | 3년(1723) | 김덕재<br>(金德材) | 미상    | 제주목  |    |
| 6  |    | 3년(1723) | 김선재<br>(金善材) | 미상    | 정의현  |    |
| 7  |    | 3년(1723) | 이수민<br>(李壽民) | 1년 미만 | 정의현  |    |
| 8  |    | 3년(1723) | 유성추<br>(柳星樞) | 1년~2년 | 미상   |    |
| 9  |    | 3년(1723) | 윤각<br>(尹愨)   | 1년 미만 | 미상   |    |
| 10 |    | 3년(1723) | 조정빈<br>(趙鼎彬) | 2년~3년 | 정의현  |    |

|    |    |           |                |             |     |             |   |
|----|----|-----------|----------------|-------------|-----|-------------|---|
| 11 |    | -         | 조성집<br>(趙聖集)   | 미상          | 미상  | 석방기사만<br>재함 | 존 |
| 12 |    | 4년(1724)  | 이시필<br>(李時弼)   | 1년 미만       | 정의현 |             |   |
| 13 | 영조 | 1년(1725)  | 윤지<br>(尹志)     | 10년~11<br>년 | 대정현 |             |   |
| 14 |    | 1년(1725)  | 이현장<br>(李顯章)   | 2년~3년       | 미상  |             |   |
| 15 |    | 1년(1725)  | 김요경<br>(金堯鏡)   | 미상          | 대정현 |             |   |
| 16 |    | 1년(1725)  | 서종하<br>(徐宗廈)   | 미상          | 대정현 |             |   |
| 17 |    | -         | 이의철<br>(李宜哲)   | 미상          | 미상  | 석방기사만<br>재함 | 존 |
| 18 |    | 3년(1727)  | 임징하<br>(任徵夏)   | 2년~3년       | 대정현 |             |   |
| 19 |    | 3년(1727)  | 김유경<br>(金有慶)   | 1년~2년       | 대정현 |             |   |
| 20 |    | 4년(1728)  | 윤봉조<br>(尹鳳朝)   | 2년~3년       | 정의현 |             |   |
| 21 |    | 5년(1729)  | 환성지안<br>(喚醒志安) | 미상          | 미상  |             |   |
| 22 |    | 5년(1729)  | 이만유<br>(李萬維)   | 2년~3년       | 대정현 |             |   |
| 23 |    | 7년(1731)  | 조관빈<br>(趙觀彬)   | 1년 미만       | 대정현 |             |   |
| 24 |    | 9년(1733)  | 권영<br>(權瑩)     | 1년 미만       | 대정현 |             |   |
| 25 |    | 13년(1737) | 김성탁<br>(金聖鐸)   | 1년 미만       | 정의현 |             |   |
| 26 |    | 13년(1737) | 이명언<br>(李明彦)   | 6년          | 대정현 |             |   |
| 27 |    | 13년(1737) | 이하택<br>(李夏宅)   | 미상          | 정의현 |             |   |
| 28 |    | 16년(1740) | 김원재<br>(金遠材)   | 미상          | 미상  |             |   |
| 29 |    | 16년(1740) | 이규채<br>(李奎采)   | 1년          | 대정현 |             |   |
| 30 |    | 18년(1742) | 민창수<br>(閔昌洙)   | 2년~3년       | 대정현 |             |   |
| 31 |    | 19년(1743) | 정실<br>(鄭案)     | 미상          | 대정현 |             |   |

|    |  |           |                |       |     |  |
|----|--|-----------|----------------|-------|-----|--|
| 32 |  | 23년(1747) | 김우태<br>(金遇兌)   | 미상    | 제주목 |  |
| 33 |  | 23년(1747) | 임명주<br>(林命周)   | 1년 미만 | 대정현 |  |
| 34 |  | 25년(1749) | 이증<br>(李增)     | 2년~3년 | 제주목 |  |
| 35 |  | 27년(1751) | 이존중<br>(李存中)   | 2년~3년 | 정의현 |  |
| 36 |  | 29년(1753) | 이성술<br>(李聖述)   | 미상    | 대정현 |  |
| 37 |  | 30년(1754) | 조영순<br>(趙榮順)   | 1년 미만 | 대정현 |  |
| 38 |  | 31년(1755) | 목덕복<br>(睦德福)   | 미상    | 정의현 |  |
| 39 |  | 31년(1755) | 목덕성<br>(睦德成)   | 미상    | 대정현 |  |
| 40 |  | 31년(1755) | 김윤희<br>(金允興)   | 미상    | 제주목 |  |
| 41 |  | 31년(1755) | 박재하<br>(朴載河)   | 미상    | 대정현 |  |
| 42 |  | 31년(1755) | 심내복<br>(沈來復)   | 8년    | 정의현 |  |
| 43 |  | 31년(1755) | 심양복<br>(沈陽復)   | 8년    | 정의현 |  |
| 44 |  | 31년(1755) | 조영항<br>(趙榮恒)   | 미상    | 정의현 |  |
| 45 |  | 31년(1755) | 송유 부<br>(宋瑜 父) | 미상    | 정의현 |  |
| 46 |  | 31년(1755) | 권굉<br>(權宏)     | 미상    | 대정현 |  |
| 47 |  | 31년(1755) | 이거원<br>(李巨源)   | 1년 미만 | 대정현 |  |
| 48 |  | 32년(1756) | 최학령<br>(崔鶴令)   | 미상    | 정의현 |  |
| 49 |  | 33년(1757) | 조중명<br>(趙重明)   | 미상    | 대정현 |  |
| 50 |  | 33년(1757) | 조영득<br>(趙榮得)   | 6년    | 미상  |  |
| 51 |  | 33년(1757) | 유동훈<br>(柳東渾)   | 6년    | 미상  |  |
| 52 |  | 38년(1762) | 한광조<br>(韓光肇)   | 1년 미만 | 대정현 |  |

|    |    |           |                  |       |     |  |
|----|----|-----------|------------------|-------|-----|--|
| 53 |    | 43년(1767) | 임관주<br>(任觀周)     | 1년 미만 | 대정현 |  |
| 54 |    | 45년(1769) | 김익<br>(金煜)       | 1년 미만 | 제주목 |  |
| 55 |    | 47년(1771) | 권진응<br>(權震應)     | 1년 미만 | 대정현 |  |
| 56 |    | 47년(1771) | 은언군<br>(恩彦君)     | 2년~3년 | 대정현 |  |
| 57 |    | 47년(1771) | 은신군<br>(恩信君)     | 2년~3년 | 대정현 |  |
| 58 |    | 51년(1775) | 윤복후<br>(尹復厚)     | 미상    | 대정현 |  |
| 59 | 정조 | 즉위년(1776) | 단혜<br>(丹惠)       | 미상    | 제주목 |  |
| 60 |    | 즉위년(1776) | 조덕순<br>(趙德順)     | 미상    | 제주목 |  |
| 61 |    | 즉위년(1776) | 문성국 모<br>(文聖國 母) | 미상    | 미상  |  |
| 62 |    | 즉위년(1776) | 심상운<br>(沈翔雲)     | 1년 미만 | 대정현 |  |
| 63 |    | 즉위년(1776) | 강덕엽<br>(姜德擘)     | 미상    | 정의현 |  |
| 64 |    | 즉위년(1776) | 홍찬해<br>(洪纘海)     | 1년~2년 | 정의현 |  |
| 65 |    | 1년(1777)  | 조완<br>(趙岏)       | 6년    | 제주목 |  |
| 66 |    | 1년(1777)  | 심익운<br>(沈翼雲)     | 미상    | 대정현 |  |
| 67 |    | 1년(1777)  | 홍계능<br>(洪啓能)     | 미상    | 대정현 |  |
| 68 |    | 1년(1777)  | 조정철<br>(趙貞喆)     | 8년    | 제주목 |  |
| 69 |    | 2년(1778)  | 이경빈<br>(李敬彬)     | 미상    | 대정현 |  |
| 70 |    | 3년(1779)  | 노성중<br>(盧聖中)     | 미상    | 대정현 |  |
| 71 |    | 4년(1780)  | 홍주익<br>(洪柱翼)     | 3년~4년 | 정의현 |  |
| 72 |    | 8년(1784)  | 혜암유장<br>(惠菴琉藏)   | 미상    | 미상  |  |

|    |          |           |              |              |       |     |  |
|----|----------|-----------|--------------|--------------|-------|-----|--|
| 73 |          | 10년(1786) | 김우진<br>(金字鎭) | 5년~6년        | 대정현   |     |  |
| 74 |          | 11년(1787) | 구순<br>(具純)   | 미상           | 미상    |     |  |
| 75 |          | 12년(1788) | 유언호<br>(兪彦鎬) | 1년~2년        | 대정현   |     |  |
| 76 |          | 13년(1789) | 조시위<br>(趙時偉) | 미상           | 제주목   |     |  |
| 77 |          | 16년(1792) | 신기현<br>(申驥顯) | 미상           | 제주목   |     |  |
| 78 |          | 18년(1794) | 이경일<br>(李敬一) | 1년 미만        | 제주목   |     |  |
| 79 |          | 18년(1794) | 이정운<br>(李貞運) | 미상           | 제주목   |     |  |
| 80 |          | 18년(1794) | 최수로<br>(崔守魯) | 미상           | 제주목   |     |  |
| 81 |          | 21년(1797) | 강이천<br>(姜彝天) | 3년~4년        | 제주목   |     |  |
| 82 |          | 순조        | 1년(1801)     | 홍낙임<br>(洪樂任) | 1년 미만 | 제주목 |  |
| 83 |          |           | 1년(1801)     | 이치훈<br>(李致薰) | 미상    | 제주목 |  |
| 84 | 1년(1801) |           | 정난주<br>(丁蘭珠) | 38년          | 대정현   |     |  |
| 85 | 6년(1806) |           | 김필주<br>(金弼柱) | 미상           | 정의현   |     |  |
| 86 | 헌종       | 6년(1840)  | 김정희<br>(金正喜) | 8년           | 대정현   |     |  |
| 87 |          | 10년(1844) | 민달용<br>(閔達鏞) | 7년           | 정의현   |     |  |
| 88 |          | 10년(1844) | 이종협<br>(李鐘協) | 미상           | 제주목   |     |  |
| 89 |          | 14년(1848) | 이승헌<br>(李承憲) | 1년~2년        | 정의현   |     |  |
| 90 | 철종       | 4년(1853)  | 이명혁<br>(李明赫) | 10년~11<br>년  | 제주목   |     |  |
| 91 |          | 12년(1861) | 염희영<br>(廉羲榮) | 2년~3년        | 제주목   |     |  |
| 92 |          | 13년(1862) | 백낙신<br>(白樂莘) | 2년~3년        | 제주목   |     |  |

|     |    |           |              |       |     |  |
|-----|----|-----------|--------------|-------|-----|--|
| 93  |    | 13년(1862) | 김시연<br>(金始淵) | 2년~3년 | 제주목 |  |
| 94  |    | 13년(1862) | 이하전<br>(李夏銓) | 1년 미만 | 제주목 |  |
| 95  | 고종 | 1년(1864)  | 심이택<br>(沈履澤) | 1년~2년 | 제주목 |  |
| 96  |    | 1년(1864)  | 구성희<br>(具星喜) | 미상    | 제주목 |  |
| 97  |    | 10년(1873) | 최익현<br>(崔益鉉) | 5년~6년 | 제주목 |  |
| 98  |    | 12년(1875) | 김성복<br>(金性復) | 3년~4년 | 제주목 |  |
| 99  |    | 13년(1876) | 정태호<br>(鄭泰好) | 2년~3년 | 제주목 |  |
| 100 |    | 16년(1879) | 이희당<br>(李禧巖) | 1년 미만 | 제주목 |  |
| 101 |    | 16년(1879) | 남정호<br>(南廷皓) | 1년 미만 | 제주목 |  |
| 102 |    | 16년(1879) | 박영훈<br>(朴泳薰) | 1년 미만 | 제주목 |  |
| 103 |    | 16년(1879) | 민영서<br>(閔泳序) | 1년 미만 | 제주목 |  |
| 104 |    | 18년(1881) | 김평묵<br>(金平默) | 1년~2년 | 미상  |  |
| 105 |    | 18년(1881) | 이태현<br>(李泰鉉) | 3년~4년 | 제주목 |  |
| 106 |    | 18년(1881) | 이재선<br>(李載先) | 1년 미만 | 제주목 |  |
| 107 |    | 19년(1882) | 백낙관<br>(白樂寬) | 1년 미만 | 제주목 |  |
| 108 |    | 19년(1882) | 윤상화<br>(尹相和) | 1년~2년 | 제주목 |  |
| 109 |    | 32년(1895) | 이민굉<br>(李敏宏) | 1년 미만 | 제주목 |  |
| 110 |    | 32년(1895) | 이충구<br>(李忠求) | 1년 미만 | 제주목 |  |
| 111 |    | 32년(1895) | 전우기<br>(全祐基) | 1년 미만 | 제주목 |  |
| 112 |    | 32년(1895) | 노흥규<br>(盧興奎) | 1년 미만 | 제주목 |  |

## (2) 조선후기 제주유배인 특징

조선후기 영·정조(英·正祖) 재임시기는 비교적 태평성대라 불리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영조의 즉위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배되고 사사(賜死)된다. 1720년 소론(少論)의 뒷받침으로 경종(景宗)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듬해 노론(老論)은 집권연장을 위하여 연잉군(延昞君; 英祖)을 세제로 책봉한다. 그 뒤 노론은 경종의 병약함을 이유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실시하게 하자, 소론인 이조참판 조태구(趙泰耆)와 김일경(金一鏡)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취소하게 만든다. 이에 집권세력이었던 노론의 김창집(金昌集) 등 4대신이 유배를 가게되고 정권은 소론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그 후 경종 2년(1722) 김일경은 노론 목호룡(睦虎龍)을 매수하여 경종의 시해와 이이명(李頤命)의 추대 음모에 가담했다고 고변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유배 중이던 노론 대신 4명은 사사(賜死)되고 제주에는 김수천(金壽天), 학손(鶴孫), 이수민(李壽民), 유성추(柳星樞), 윤각(尹愨) 등이 유배를 오게 된다. 그 후 영조가 즉위하게 되고 신임사화(辛壬士禍)가 무고로 조작된 것이라는 노론의 집중적인 탄핵이 일어나면서 신임사화와 관련된 소론의 윤지(尹志)와 이현장(李顯章), 김요경(金堯鏡), 김운흥(金允興) 등이 유배를 오게 된다. 1년여 사이에 같은 사건으로 노론과 소론이 제주에 유배되고 이들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 후 영조31년(1755) 목호룡의 아들인 목덕복(睦德福)과 목덕성(睦德成) 이 목호룡의 죄와 관련하여 제주로 이배되어 안치(安置)된다.

또한 이 시기에 탕평정치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당한다. 임징하(任徵夏), 조관빈(趙觀彬), 임명주(林命周), 이존중(李存中), 윤봉조(尹鳳朝)등인데, 임징하의 경우 1725년 노론이 집권하자 6개조의 상소를 올려 탕평책을 반대하며 소론제거를 주장하다 1727년 소론이 집권하면서 제주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

순조(純祖)가 즉위하면서는 천주교 탄압과 관련하여 홍낙임(洪樂任)과 이치훈(李致薰)이 신유옥사(辛酉獄事)와 관련하여 제주목으로 유배되었고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에 연좌되어 그의 부인 정난주(丁蘭珠)가 대정현으로 유배되어 38년간 유배생활을 한다.

그리고 조선후기 제주유배인 가운데는 과거부정으로 유배를 온 인사가 5명이나 된다. 고종(高宗) 1년 구성희(具星喜)와 고종16년 이희당(李禧戀), 남정호(南廷皓), 박영훈(朴泳薰), 민영서(閔泳序) 등이다. 이들은 제주 출신을 우대해주는 과거 시험 제도를 악용해 출신지를 속여 제주라 하고 과거에 합격했다가 발각되어 입격이 취소되고 제주로 유배된다.

또한 고종 시기에는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과 관련하여 4명이 제주도로 유배된다. 춘생문사건은 고종 32년(1865) 11월 28일에 명성황후계 친미·친러파의 관리와 군인들이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친일정권에 포위되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국왕을 궁 밖으로 나오게 하여 친일정권을 타도하고 새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를 왕위찬탈사건으로 규정짓고 이민굉(李敏宏), 이충구(李忠求), 전우기(全祐基), 노흥규(盧興奎) 등을 종신유형으로 제주에 유배시킨다.

조선후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배사유가 다양해지고 유배인의 신분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 3) 조선후기 제주유배교육

#### (1) 김정희(金正喜)(1786~1856)

김정희는 예산 출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완당(阮堂)등이다.

순조(純祖) 19년(1819)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예조 참의·설서·검교·대교·시강원 보덕을 지냈다. 1830년 생부(生父) 김노경(金魯敬)이 윤상도(尹尙度)의 옥사(獄事)에 배후 조종 혐의로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순조의 특별 배려로 귀양에서 풀려나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복직되고, 그도 1836년에 병조 참판·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1834년 순조의 뒤를 이어 헌종(憲宗)이 즉위하고,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때 그는 다시 10년 전 윤상도의 옥에 연루되어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헌종 말년에 해배(解配)된다.

그러나 1851년 친구인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의 일에 연루되어 또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2년 동안 유배된다. 그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면서 학예(學藝)와 선리(禪理)에 몰두하다가 생을 마쳤다.

우리에게 서예로 잘 알려진 김정희는 사실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거두이다. 김정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널리 알려졌으며 당시 북학파(北學派)의 일인자인 박제가(朴齊家)의 제자가 된다. 박제가의 영향으로 김정희의 학문 방향은 청나라의 고증학(考證學) 쪽으로 기울어졌다. 24세 때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나갈 때 수행하여 연경에 체류하면서, 옹방강(翁方綱)·완원(阮元) 같은 이름난 유학자와 접할 수 있었다.

그는 헌종 6년(1840)의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한 출사기를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55세 때 대정현(大靜縣)에 유배 오게 된다. 김정희는 9년간의 제주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주도에 실학의 학풍이 소개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김정희의 제주유배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후일 그의 학통을 승계하고 『완

당집(阮堂集)』 오권오책(五卷五冊)을 편집하였으며 유배기간 동안에 두 차례나 내도 했었던 내종질(內從姪) 민규호(閔奎鎬)가 쓴 「소전(小傳)」에 소상하다.<sup>45)</sup>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짚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人文)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文彩)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sup>46)</sup>

대다수 유배인들이 그러하듯 김정희도 제주의 풍속을 거칠고 무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앙과는 다른 풍속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우매하게 보이는 것이다. 김정희는 유배생활동안 독서와 유배교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는 지인들에게 많은 서간을 보내는데 여기에 제주의 제자관계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여기 이시형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난데 결단코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견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같고 닦게 한다면 족히 이 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난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sup>47)</sup>

위의 글은 서울의 양자 상무(商懋)에게 보낸 서한이다. 김정희는 이시형(李時亨)이 학문하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희는 단순히 제주인들의 무매함을 개선하는 제한된 역할에 국한되어 유배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도를 다하여 제주 유림들의 교육에 진력한 것이다.

김정희의 제자는 강사공(姜師孔), 박계첨(朴啓瞻), 허숙(許淑), 이시형(李時亨), 김려추(金麗錐), 이한우(李漢雨), 김구오(金九五), 강도순(姜道淳), 강기석(姜琦奭), 김좌겸(金左謙), 홍석우(洪錫祐), 김병욱(金炳旭)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다.<sup>48)</sup>

김정희와의 사우강습(師友講習)으로 그의 제자들은 제주에서 이름을 떨치게 된다. 김구오(金九五), 강도순(姜道淳), 박계첨(朴啓瞻) 등은 모두 제주필원으로 추앙

45)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 연구」, 제주도연구 제9집, 1992, p191.

46)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 遠近負 者如市 數月人文大開 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自公始」.

47)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2 「此邑李生時亨 年少才逸 決意欲此學其志頗銳 不可阻奪 使之上去 試與同研 雖其見聞不廣若使磨足以傲此地不讀者耳 其行從船而去 似遲緩矣」.

48) 양진건, 앞의 논문, 1992, p.192

받았다. 제주의 전각운동(篆刻運動) 역시 그의 영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된다. 그의 전각기술은 제주인들 가운데 김구오(金九五)가 승계하였으며 이어 김구오(金九五)의 아들인 우재(愚齋)<sup>49)</sup>가 정통(正統)을 이었고 우재(愚齋)의 아들 김의남(金義男)이 가법(家法)을 따랐다. 이어 김의남(金義男)을 홍종시(洪鐘時)가 이었고 이어 박판사(朴判事)(성명 미상)가 전승하는 등 조선 후기 제주특유의 문화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50)</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희는 다른 누구보다 많은 제자들을 문하생으로 두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적막한 유배생활에서 삶의 활력을 찾았다. 그들과 시를 지어 교류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이러한 김정희의 유배교육은 제자들의 사제연원(師弟淵源)이 지속되면서 조선말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김정희로 인해 제주유림들은 실학사상의 한 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제주유배교육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

49) 본명은 김노현(金魯鉉), 호가 우재이다. 『제주사인명사전』 참조.

50) 양진건, 앞의 책, 2001, p.239

## (2) 최익현(崔益鉉)(1833~1906)

최익현은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菴)이다. 14세 때 경기도 양근(楊根) 벽계(蘗溪)에 은퇴한 성리학의 거두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격몽요결(擊蒙要訣)』, 『대학장구(大學章句)』, 『논어집주(論語集註)』 등을 통해 성리학의 기본을 습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항로의 '애군여부 우국여가(愛君如父 憂國如家)'의 정신, 즉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배웠다. 철종(哲宗) 6년(1855) 명경과에 급제해 승문원부정자로 관직생활을 시작했고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다. 이후 고종의 신임을 받아 호조참판에 제수되어 누적된 시폐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권신들이 반발해 도리어 대원군 하야를 부자이간의 행위로 규탄하였다. 이에 「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를 올려 민씨 일족의 옹폐를 비난했으나 상소의 내용이 과격, 방자하다는 이유로 고종 10년(1873) 12월초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 시기 조선은 다양한 이유에서 체제가 급속히 흔들리게 된다. 내외적으로는 왜란과 호란으로 농촌은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부정과 불공정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척박해진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서양이 문호개방(門戶開放)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의 체제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전개되는데 그 중 성리학적 주리론(主理論)을 토대로 조선의 체제보위를 주장하는 척사위정(斥邪衛正) 사상이 한 맥을 형성한다. 척사위정 사상의 이론적 기수는 이항로(李恒老, 1792~1868)와 기정진(奇正鎭, 1789~1876)이다.

최익현은 이항로의 문하에서 척사위정 사상을 심취하여 외세의 침략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상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의 영향으로 제주유림들은 강한 시대 비판적(批判的)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이응호(李應鎬)를 비롯한 제주문사들에게는 집의계(集義契)라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결성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의 영향으로 조선말기 제주도의 교학질서의 분위기를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풍으로 일신(一新)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sup>51)</sup>

최익현은 제주에서 많은 제주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교유한다. 제주도에 서 최익현의 초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희정(金羲正), 안달삼(安達三), 강기석(姜琦奭), 김용징(金龍徵), 김치용(金致用), 김양수(金亮洙) 그리고 이기온(李基濫), 강철호(姜哲鎬) 등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최익현의 지적 대로 왕래종유했던 문사들이며 실제 최익현 자신이 문인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최익현의 사우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는 김희정이 유일하다.<sup>52)</sup> 그 중 기정진(奇正鎭)의 제자였던 안달삼은 면암과의 관계를 통해 면암과 기정진의 만남을 성사시키기도 한다.<sup>53)</sup>

최익현의 척사론은 당당한 저항의 이데올로기로써 제주 유림들이 조선말기와 일제시대에 다양한 행동지향적 활동을 통해 조국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사상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훗날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전국에서는 여러 의병활동(義兵活動)이 일어나는데 제주에서는 뒤늦게 의병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제주의 의병은 태인(泰仁)에서 거병하여 전라도 지방을 휩쓸다 순창(淳昌)에서 잡혀 대마도로 끌려가 분사한 최익현의 순국(殉國)과 기정진의 손자인 의병대장 기우만(奇宇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sup>54)</sup> 이러한 최익현의 영향은 앞서 언급한 비밀결사 집의계의 결성이나 제주의 의병운동, 나아가 제주의 조천만세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최익현의 제주유배교육은 명확한 사상적 토대와 제주유림들과의 다양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 이전과는 다르게 제주유림들이 직접 행동양식을 통해 사상과 교육을 실천하게 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1) 고창석 외, 「濟州島 유배에서의 勉庵 崔益鉉의 教學活動研究」, 『탐라문화』, 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p291~292.

52) 고창석 외, 위의 논문, 1989, p.279 참조.

53) 고창석 외, 위의 논문, 1989, p291~292.

54) 고창석 외, 위의 논문, 1989, p283 참조.

#### 4) 조선후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조선후기는 '유배교육의 실천기'로써 유배교육을 통해 제주유림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중심으로 조선후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시기 유배교육으로 인해 제주의 학풍이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변화하게 된다. 조선중기까지의 유배인들은 조선의 성리학적 사상에 충실한 사대부로서 그들의 교육을 통해 제주유림들은 유학 경전을 공부하며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진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성리학의 반정적 흐름인 실학 사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유배인 김정희를 통해 실학이 제주도로 유입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남학과와 기호학과 학풍이 제주에서는 다양하게 혼합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학사상 또한 제주의 한 학풍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뚜렷한 학풍이나 성리학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였기에 실학사상의 유입이 오히려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 내용은 더욱 풍성해 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희는 제주유배시 강사공, 박계첨, 이시형, 김여추, 이한진, 김구오, 강도순, 강기석 등과 사우강습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박계첨, 김구오, 강도순 등은 제주 필원으로 추앙되었으며, 특히 김구오는 추사의 독특한 시서화 일치의 교학사상을 제주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큰 몫을 한다. 분명 공소한 관념적 학문을 떠나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교육관을 강조한 김정희의 주장은 제주유림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을 것<sup>55)</sup>이며 이러한 실학적 교육은 제주유림들의 다양한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 실천적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선후기 유배교육 인물이 매우 한정적인데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는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은 112명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유배교육의 인물은 김정희와 최익현 두 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후기 유배인들은 대의적 명분을 위해 왕에게 직언(直言)하여 억울하게 유배된 인물보다는 당쟁과 반란사건 등으로

55) 양진건, 앞의 논문, 1986, p242.

유배된 인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성리학적 스승의 모습을 갖춘 유배인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듯 조선후기 많은 제주유배인 가운데 김정희는 무고(誣告)로 제주에 유배되었으며 최익현은 상소문으로 유배되었다. 이 둘은 당시의 학문적 역량이나 명성만으로도 스승의 모습을 갖추기에 충분하였으며 유배 사유 역시 제주유림들에게는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정희와 최익현은 열정적으로 제주유림들과 사우강습의 관계를 맺고 교학활동에 진력하여 조선후기 제주교육의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 4. 조선말기

### 1) 조선말기 제주교육의 특징

조선 말기는 개화기(開化期)라고 명명되는 1876년 개항(開港)으로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개화라는 말과 근대라는 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조선시대의 봉건적 지배체제가 급속히 와해되고 새로운 문명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이다. 그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 근대교육이 시작된다.

제주에서의 근대교육을 사상·이념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 실학사상과 척사위정사상이 유입은 근대교육으로 가는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근대교육 사상이 실학사상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척사위정사상으로 인해 제주에서도 유럽들이 연대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는 후일 개화기교육의 운동적 성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유배된 개화사상가(開化思想家) 김윤식(金允植)과 박영효(朴泳孝) 등의 영향으로 조선말기 근대교육의 사상적 토대가 마련된다.

제주도에서의 근대교육제도는 윤원구(尹元求)가 제주군수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제주군수 부임 이듬해인 1907년 제주도 최초의 근대학 교로서 중등 교육기관인 사립 의신학교(義信學校)를 오현단에 개설하고 또 영주 관 터전에 최초의 초등 교육기관인 제주보통학교를 개설하였다. 이 학교가 오늘날 제주북초등학교의 전신이다.<sup>56)</sup>

윤원구의 교육 활동을 시작으로 제주에는 근대교육기관이 다양하게 설립된다. 이들 가운데 칠봉서숙(七峰書塾)에서 개칭된 문음서숙(文陰書塾)은 이응호(李膺鎬)가 개설한 것으로 이는 개량서당에서 시작된 근대교육기관이다. 조선후기 개량서당이 민중의 계몽을 위한 중요한 교육기관이었는데 제주도에도 개량서당이 보편적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문음서숙은 이응호가 최익현의 영향을 받아

56) 제주문화원, 앞의 책, p440.



전통교육과 척사위정의 논리를 내세운 교육기관에서 발전한 것으로 조선후기 제주교육의 특징이 반영된 형태이다.

이용호가 개설한 문음서숙이 동도동기적(東道東器的)인 사상적 배경으로 출발했다면 조천지역의 근대학교들은 동도서기적(東道西器的) 사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조천지역은 중앙과의 소통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였으며 조천지역 거부(巨富)였던 김응빈(金膺彬)이 김윤식(金允植)에게 자신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신교육과 개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유였다.

그런가 하면 제주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개신교 보다 먼저 카톨릭계에 의해 신성여학교(新星女學校)가 개교되었다. 육지부 지역에서는 카톨릭계 학교보다 개신교계 학교가 다양하게 설립되는데 제주에서는 카톨릭계 학교인 신성여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이는 당시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의 내용이나 정보들이 뒤떨어지던 시기임에도 여성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여학교가 되는 것이다. 카톨릭의 문화사업과 문화활동이 지향하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들이 제주도 여성의 자주적 품성과 결합되어 제주여성들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측면이 있다.<sup>57)</sup>

개화기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에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전통적 의식을 바탕으로 마련한다. 즉, 제주도 전통의 수놓음의 형태가 교육에서 활용된다. 이는 제주시 화북마을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북 주민들은 자녀들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집하고 지식인들은 무보수 교사가 되어 주민들의 힘으로 화북학교를 건립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책접(冊接)”, “강학접(講學接)” 등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교육이 진행된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산출된 재산을 교육에 사용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유배인 김윤식과의 교류를 위해 시작된 『귤원(橘園)』 시회의 모임으로 제주의 시문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개화사상이 제주도에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박영효에 의해 제주의 특용작물등이 보급되는데 이는 농촌계몽운동의 측면이 강하다. 유배인들의 유배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사』, 2011, p.32.

## 2) 조선말기 제주유배인의 현황 및 특징

### (1) 조선말기 제주유배인 현황

본 고에서 다루는 조선말기는 광무 1년(光武1년; 1897)부터 융희 3년(隆熙3년; 1910)까지이다. 이 시기 유배인은 13명으로 가장 적으며 이는 조선말기가 13년만의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선말기 제주유배인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 6> 조선말기 제주유배인 현황  
(光武 1년(1897) ~ 隆熙 3년(1910))

| 연번 | 연호 | 연도       | 유배인          | 유배기간  | 유배지역 | 비고 |
|----|----|----------|--------------|-------|------|----|
| 1  | 광무 | 1년(1897) | 이근용<br>(李根鎔) | 1년 미만 | 제주목  |    |
| 2  |    | 1년(1897) | 김낙영<br>(金洛榮) | 미상    | 제주목  |    |
| 3  |    | 1년(1897) | 김사찬<br>(金思燦) | 2년~3년 | 제주목  |    |
| 4  |    | 1년(1897) | 장윤선<br>(張允善) | 4년~5년 | 제주목  |    |
| 5  |    | 1년(1897) | 이용호<br>(李容鎬) | 2년~3년 | 제주목  |    |
| 6  |    | 1년(1897) | 한선회<br>(韓善會) | 6년    | 제주목  |    |
| 7  |    | 1년(1897) | 김윤식<br>(金允植) | 2년~3년 | 제주목  |    |
| 8  |    | 1년(1897) | 이승오<br>(李承五) | 2년~3년 | 제주목  |    |
| 9  |    | 1년(1897) | 이원궁<br>(李源兢) | 미상    | 제주목  |    |
| 10 |    | 1년(1897) | 여규형<br>(呂圭亨) | 미상    | 제주목  |    |
| 11 |    | 1년(1897) | 지석영<br>(池錫永) | 미상    | 제주목  |    |
| 12 |    | 1년(1897) | 안기중<br>(安沂中) | 미상    | 제주목  |    |
| 13 | 융희 | 1년(1907) | 박영효<br>(朴泳孝) | 2년~3년 | 제주목  |    |

## (2) 조선말기 제주유배인 특징

조선말기 제주유배인의 특징으로 주목되는 것은 앞의 표에서 보듯이 유배지역이 제주목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이재수의 난 등 제주에서 일어난 여러 민란 등으로 제주목을 제외한 대정, 정의 지역에 대한 중앙의 행정력과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말기는 을사오적(乙巳五賊)중 한명인 이근택(李根澤)<sup>58</sup>이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다 유배를 오게 된다. 1897년 친위연대 3대대장이었던 이근택은 정부 전복을 꾀하다 탄로나 그 일당들인 김낙영(金洛榮), 김사찬(金思燦), 장윤선(張允善), 이용호(李容鎬), 한선회(韓善會)등과 제주로 유배된다.

그리고 고종 34년(1897) 여규형(呂圭亨), 지식영(池錫永), 안기중(安沂中), 이원궁(李源兢)등이 독립협회 회원들과 함께 시종원시종(侍從院侍從) 김영준(金永準)의 무고로 체포되어 민심을 현혹했다는 죄로 10년 유배형을 받게 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에서 조정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여 곧 석방되었다.

조선말기는 불안정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국·내외의 정치적 이유로의 유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유배기간을 정하여 유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58) 이근택의 초명은 이근용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근용으로 명시되었다.

### 3) 조선말기 제주유배교육

#### (1) 김윤식(金允植)(1835~1922)

김윤식은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이다. 고종 2년(1865) 음관(陰官)으로 출사하여 건침랑(健寢郎)이 되었다. 1874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황해도 암행어사·문학·시강원 겸 사서·부응교·부교리·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1880년 순천부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갑오경장(甲午更張)에 관여하여 외무대신에 임명되었지만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면직됨과 동시에 을미사변에 연루 탄핵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가 제주도 유배명령을 받았을 때 규장원경 이승오(李承五)도 함께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김윤식과 이승오가 제주로 유배되자 제주의 인사들은 매일같이 문안하며 위로하였다.<sup>59)</sup>

그는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귤원(橘園)’이라는 시회(詩會) 모임을 주도했다. ‘귤원’은 1898년 4월 22일 김윤식의 적소에서 첫 모임을 가지고 총 24회에 걸쳐 활동한다. 회원은 유배인 7명, 지시인 5명, 그리고 도내 지식인 11명으로 모두 23명이다. 유배인 김윤식, 이승오, 서주, 정병하, 한선희, 이용호, 김사찬, 육지부 학자는 정현구, 황병욱, 오경립, 나인영, 류영석 등이다. 제주 출신 문인은 김병운, 김병하, 김웅진, 김웅빈, 이공식, 홍종시, 성준호, 김희두, 최창순, 김창호, 장규열 등이다.<sup>60)</sup>

시회(詩會)는 애초 유배인들이 무료함을 달랠 요량으로 모임을 가졌으나 이 후 시문에 관심을 가진 제주도 지식인들도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 문화 계발의 기폭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주성 내외의 문화 유적을 두루 돌아다녔으며, 제주도의 한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개화지식인 김윤식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소개 되어 중앙과 지방의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결국, 이 모임

59)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2005, 331~338참조.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p.31 참조.

은 근대 교육 사상을 제주도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 박영효(朴泳孝)(1861~1939)

박영효는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무량(無量)이고 자는 자순(子純)이다. 한말 개화파를 대변하는 인물로 개화 운동을 이끌었으나, 한일합방 후에는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파로 활동하였다.

순종(純宗) 1년(1907) 비공식적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체류하다가 상경하여 궁내부 고문 가토(加藤增雄)의 중재로 고종의 특사 조칙을 받아 정계에 복귀하였다. 고종이 강제로 양위되자 군부 내의 반양위파(反讓位派)와 공모하여 고종의 양위에 찬성한 대신들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1907년 8월 27일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박영효는 제주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제주도 근대 학교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윤원구(尹元求) 제주군수가 1907년 4월 사립 의신학교의 설립을 위해 자금을 모금할 때 1백원을 지원하여 개교에 크게 기여한다.

박영효는 신성여학교 개교와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성내교회'가 세워질 때도 기부를 통해 기여하는데 이로써 근대 제주교육과 제주문화의 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sup>61)</sup>

박영효의 제주유배와 관련되어 행해진 개화유배교육은 농업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제주로 유배와서 처음에는 조천리 출신 김희주(金熙胄)의 집에 거처하다가 제주읍 구남동 독질골 과수원에 정착하여 3년 간 지냈다. 이곳에서 그는 20여년간 일본 망명세월에서 얻은 특수원예농업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고 제주사람들에게 권장한다.

감귤류를 비롯하여 감, 비파, 대추, 석류 등 과수와 양배추, 양파, 토마토, 무우, 당근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했는데 대체로 성공율이 높은 편이었다. 박영효는 재배에 성공한 작물에 대해서는 제주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심도록 했으며 아울러 식생활의 개선도 강조했는데 이는 실생활과 관련된 개화유배교육이다.

6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의 책, p.32~33. 참조.

박영효의 이러한 활동은 아직 농촌개혁운동 차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지만 농촌계몽운동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기후와 토지, 강수량등의 특수 조건을 적용한 원예작물의 권장을 통해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구조를 자극시켰다는 측면에서 제주도 농업사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주사람들에 대한 계도(啓導)는 원예농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운과 국제정세 등의 시국관은 물론, 근대사상의 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에 공명하여 박영효의 주변에는 많은 제주사람들이 모여 들어 학문적인 질의와 토론을 나누었다. 김응전, 김응빈, 김창호, 김종하, 송두옥, 채구석, 김양수, 김희두, 홍종시, 최원순, 장용견, 채수강, 안병택, 김홍익, 김근기 등이 그들이다.<sup>62)</sup>

그 외에도 제주청소년들을 상대로 신학문을 소개하였으며 고자환(高子煥)의 경우엔 양자로 삼아 교육 시키기도 했다. 김윤식에 비해 박영효는 당대의 정치적 비중 덕에 여러 측면의 개화유배교육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영향은 제주사람들에게 개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p32.

#### 4) 조선말기 제주유배교육의 의미

조선말기는 근대교육의 시작기로써 ‘유배교육의 전반기(轉換期)’라 명명하였다. 조선말기 유배교육은 온건개화파 김윤식과 급진개화파 박영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제주유배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말기 유배교육을 통해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근대교육은 윤원구 제주군수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윤원구 목사는 제주 근대교육의 제도적 측면에서 근대 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교육 제도에 앞서 교육사상이 확립되어야 교육 내용과 체계가 구조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주에 근대교육 사상을 소개한 인물은 유배인 김윤식과 박영효이며 이들은 교학 활동을 통해 제주 유림들에게 근대교육 사상을 전파하게 된다. 그들에 의해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와 관리임용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교육 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개화교육사상이 소개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제주도에서도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로 박영효에 의한 원예농업의 권장과 농촌계몽운동이다. 제주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곳으로 현재까지도 농업이 제주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농업에 대해 박영효의 활동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다른 유배인과는 달리 실생활 개선을 위한 계몽활동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조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대맥(大麥)과 조가 대표적인 작물이었다. 그런데 박영효는 제주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풍토 등을 고려하여 일반농사보다는 특수원예농업이 적합하리라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과수를 심고 원예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리고 제주인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심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의 농업은 제주의 전통적 모습과 원예작물이 공존하는 이원적(二元的)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박영효의 활동은 일련의 농촌계몽운동과도 관련이 되는데 농촌계몽운동은 교육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교육의 고전적 양식 가운데 하나로서 특히 사회개량 교육개혁운동의 주요한 흐름이다.<sup>63)</sup>

#### IV.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의 의미

근래에 들어 지방교육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중앙중심의 교육사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의 중앙집권적 사상이나 정치·교육·문화 등이 중앙을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행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이 있지 않고는 중앙이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역사나 교육사 분야에서는 지방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생활의 역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상황을 통해 형성된 지방교육사는 중앙중심의 한국교육사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고 매우 특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사를 고찰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중앙중심의 교육사와 다른 시각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육사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도라 판단된다.

더욱이 제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적 특수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유배인을 매개로 하여 조선시대 제주교육사를 살펴 본 것은 색다른 시도이며 제주만의 독특한 교육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유배교육사를 조선 전기·중기·후기·말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시기별 의미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시기별 제주유배교육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교육의 역사 가운데 조선전기는 태조조(太祖朝; 1392)에서 인종조(仁宗朝; 1545) 기간으로 이른바 '제주유배교육의 태동기(胎動期)'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른바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으로 빚어진 4대 사화(士禍)로 인해 여러 유배인들이 제주도를 찾게 된다. 이들 가운데 특히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데올로기를 신봉했던 사림파들이 제주도에 유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교육은 일찍부터 사림의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충암(沖庵) 김정(金

63) 양진건, 「開化期 濟州島 教育史 研究」, 「濟州島史研究」, 第4輯, 1995, p.62.



淨)과 '이세번(李世蕃)'은 당대 최고의 교육자이자 도통의 계보였던 조광조(趙光祖)와 교우(交友) 또는 사제관계(師弟關係)를 맺었던 사람으로서 이들을 통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통(道統)'의 영향을 접할 수 있었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 나타난 미신 타파와 향약 실시를 권장하는 내용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세번의 후손들이 제주에 남아 제주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킨 사실은 사림파들이 주장하는 향촌 지지와 지방문화 중시를 직접 실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김정에 의해 제주의 무속신앙에 대한 유교적 비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제주에서 유교문화와 무속신앙이 병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배인들을 통해 유교적 이념인 '충'과 '효'가 제주인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었던 점 등은 이시기 제주유배교육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중기는 명종조(明宗朝; 1546)에서 숙종조(肅宗朝; 1720)의 시기로써 '제주유배교육의 성숙기(成熟期)'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당쟁으로 관료 상호간의 권력암투가 심대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발전, 심화되던 때였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중기는 출륙억제(出陸抑制)라는 제도적인 금압정책(禁壓政策)이 강요됨으로써 대외적인 교육진출의 길이 거의 봉쇄된 상황에서 교육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쟁으로 인해 빈번해진 유배인과 제주인들과의 교육관계는 어느 정도 그러한 교육적 위축을 보상해 줄 수 있었다.

조선중기 제주유배교육에서 다루어진 인물들은 정온(鄭蘊), 이익(李瀾), 신명규(申命奎), 김진구(金鎭龜), 김춘택(金春澤) 등으로 이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제주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 제주의 문과합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익의 제자 김진용(金晉鎔)과 고흥진(高弘進), 문영후(文榮後), 문징후(文徵後) 등이다. 오정빈(吳廷賓), 고만침(高萬瞻), 정창선(鄭敞選) 등도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중기 제주유배교육을 통해 많은 유림들이 중앙관료로 입문하게 된다. 또한 조선중기 유배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풍이 제주에 소개되는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김진구를 통해 기호학파의 학풍이 제주에 소개되었으며 간옹 이익은 영남학파의 영향을 제주에 남기게 된다. 이렇듯 제주에서는 유배인들을 통해 조선시대 대표적 학풍인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사조를 모두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조선중기 유배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제주교육의 특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는 경종조(景宗朝; 1721)에서 고종조(高宗朝; 1896)의 시기로써 '제주유배교육의 실천기(實踐期)'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들면서 세도정치, 삼정문란, 세정의 불공정, 지방관리의 불법수탈 등으로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었다. 반면에 민중의 지식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그들의 문제의식은 차츰 높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조화현상 속에서 한 시대의 정신이념이었던 유학 안에는 성리학과 대조적인 사조가 잉태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리학의 반정적(反正的) 흐름인 실학과 성리학의 실천적 사상인 척사위정사상이 제주도에 소개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제주교육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다. 제주에 유배된 실천적 지식인들의 영향은 훈고(訓誥)의 전통에서 제주교육을 보다 능동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제주유배인으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을 들 수 있는데 추사의 제주도 제자들이 제주필원으로 추앙받고 전각운동 등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한 것이나 면암의 사상이 후대에 제주의 의병운동과 3.1만세운동 등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들이 이 시기 제주교육의 새로운 전통이자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조선말기는 광무 1년(光武 1年; 1897)에서 융희 3년(隆熙 3年; 1910)으로 '제주유배교육의 전환기(轉換期)'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말기는 이른바 개화기(開化期)라고 명명되는 1876년 개항으로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는 종래의 유교적 전통의 제약 속에서 소수의 개화사상가들이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려는 의도에서 근대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근대적 교육사상의 형성되고 그것이 대중속에 침투함으로써 대중적 교육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타의 시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시기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됨으로써 제주교육이 구(舊) 교육에서 근대교육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제주도에는 전무했던 여성근대교육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가능하게 된 것도 박영효와 같은 개화 지식인의 제주유배가 아니었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박영효는 제주에 원예농업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농촌계몽운동의 성격을 띤 매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주유배교육이 조선시대 제주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제주유배교육은 조선시대 제주교육과 중앙교육의 매개역할(媒介役割)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교육의 변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배인들을 통한 유배교육은 조선시대 중앙의 교육 사상과 체계, 내용을 제주인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유배인은 당대의 중앙정치의 고위 관료로서 당대 주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당대의 사상과 교육을 제주에 전파하여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제주유배교육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당대의 사상적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된다. 이들은 제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유배교육을 행하게 되며 제주인들은 그들을 통해 교육적 혜택을 입게 된다. 조선전기에는 김정(金淨)과 이세번(李世蕃)등을 통해 김굉필(金宏弼)에서 조광조(趙光祖)로 이어지는 사림파의 '지치주의(至治主義)' 사상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중기에는 간옹(艮翁) 이익(李瀾)을 통해 이황(李滉)→정구(鄭述)→이익(李瀾)으로 이어지는 영남학과(嶺南學派)의 학풍이 제주에 전수된다. 후기에는 실학사상의 거두 김정희(金正喜)를 통해 실학사상이 제주에 소개되고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을 통해 척사위정(斥邪爲政) 사상이 제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조선말기에는 근대사상과 근대교육이 유배인들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기의 실학사상과 더불어 실생활교육도 병행하여 일어난다.

두 번째로 제주유배교육은 당대의 유배인과 지역민의 만남을 통한 교육활동이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벗어나 유배인의 영향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 후대의 시·공간에까지 이어지는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유배인의 제자들을 통해 혹은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며 다른 유배교육 관련자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례는 '가통(家統)'을 통해 제주유배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이세번'과 '간옹 이익'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김정의 제자인 김양필은 그의 가문을

통해 김정의 유배교육은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양필의 후손인 김경희(金慶會)는 영조 51년(1775), 김용(金壙)은 정조 5년(1781), 김석린(金錫麟)은 순조20년(1828)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제주유림의 맥을 잇는다. 그 후손 김병수(金炳洙)는 철종13년(1862) 이견필 찰리사에 의하여 시취되어 고종 6년(1869)에 제주관관 등을 지낸다. 또한 묵농(墨農) 김종현(金鍾炫)은 조선후기 척사위정 사상의 대가인 면암 최익현 문하에서 수학하고 문행(文行)으로 알려져 후진 교육에 힘쓰고 속문과 시에 능하였다.<sup>64)</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양필의 가문은 김양필이 유배인 김정에게 수학한 후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그 학맥을 이어간다. 또한 김종현은 유배인 면암 최익현에게 학문을 익히니 김양필의 가문과 유배인의 교육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간옹 이익의 후손 이기온(李基濫)과 이응호(李膺鎬) 역시 면암 최익현과 사우강습의 학적관계를 맺는다. 제주인 오정빈(吳廷賓)은 당대의 유배인 신명규(申命奎) - 신임(申任) 부자, 김진구(金鎭龜) - 김춘택(金春澤) 부자에게서 학문을 익히고 그 후손 오진조(吳眞祚)는 제주에서 평생 후진양성에 힘써 오정빈의 가문 역시 유배교육의 영향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제주유배교육은 당시 유배인과 제주인들만의 단편적 만남과 그 기간의 교육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전통으로 혹은 후대 유배인과의 만남 등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주유배교육은 중앙의 다양한 서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배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주인들은 중앙의 인맥이 넓어지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렇듯 제주유배교육은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매개적 역할과 사상의 전수 그리고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영향으로 조선시대 제주교육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64)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濟州濡脈六百年史』, 1997, p.346. 참조.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교육을 유배라는 행형적(行刑的) 조건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제주유배인을 조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조선시대 공식 기록물을 통해 제주로 유배 온 인물을 확인하고 제주유배인 관련 선행연구 저술 및 논문과 비교하였다. 또한 제주유배교육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 조선시대를 전기, 중기, 말기, 후기로 구분지어 살펴보고 시기별 의미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조선시대 제주유배인은 조선전기 25명, 조선중기 63명, 조선후기 112명, 조선말기 13명으로 총 213명이며 추자도 유배인은 제외한 숫자이다. 그들 중 제주유배생활 동안 교육과 관련된 기록을 남긴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인물은 조선전기 2명(김정, 이세번), 조선중기 5명(정온, 이익, 신명규, 김진구, 김춘택), 조선후기 2명(김정희, 최익현), 조선말기 2명(김윤식, 박영효) 등 총 11명이다. 시기별 의미를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의 의미를 도출해 제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제주교육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유배인들의 교육활동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제주유배교육을 통해 조선시대 교육이데올로기가 제주도에 보급되고, 가르쳐지고, 논의되어 그에 따른 교육전통이 만들어짐으로써 제주교육의 특수한 역사적 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제주유배교육은 조선시대, 제주라는 시대·지역적 상황과 유배라는 형벌이 만들어낸 제주의 독특한 교육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유배교육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역사는 한층 깊어지고 더욱 다양해졌다. 본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의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다양한 의미 분석을 시도하여 향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내용적으로 풍성한 제주유배교육사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2. 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유배인의 교육활동에 대해 ‘제주유배교육’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와 의의 못지않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배교육’이란 용어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내린 ‘유배교육’은 완전한 개념으로 성립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의 구분 외에 유배교육의 내용, 형식, 방법,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 검토와 그에 따른 일반화 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배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욕심 때문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배교육’의 개념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시기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교육사상사를 연구한 양진건의 시대구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유배교육만의 시대구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유배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한 후 시기 구분을 통해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접근은 시대구분을 정하고 그 시기에 유배교육사를 맞춰 나가면서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만의 특색있는 시대구분이 제시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를 분명하게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구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자료조사의 문제이다. 제주유배인이 남긴 문건은 그리 많지 않으며 교육과 관련한 문건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제주유배교육사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면접조사를 토대로 제주유배교육사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유배인들이 지역과 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와 유배인 후손에 대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체계화 하여 자료로 제시한다면 더욱 다양한 내용의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제주유배인과 교육에 대한 자료의 체계화도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제주유배교육이나 유배문화의 자료들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여러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지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제주유배교육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배인과 교육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분류해 제주유배교육뿐만 아니라 제주유배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후속연구와 노력들로 인해 제주유배교육이 지닌 다양한 가치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문헌자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대정군읍지(大靜郡邑誌)』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정의읍지(旌義邑誌)』  
『제주읍지(濟州邑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충암집(冲庵集)』  
김정희, 『완당선생전집(阮堂先生全集)』  
김춘택, 『김춘택(北軒集)』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규창집(葵窓集)』  
임정하, 『시재집(西齋集)』  
정은, 『동계집(桐溪集)』

### 2. 연구논저

#### 1) 단행본

-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세림, 2000.  
김봉현, 『濟州島流人傳』,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김오순, 『탐라순력도산책』, 제주문화, 2001.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2001.  
\_\_\_\_\_, 『제주유배문학자료집(1)』,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_\_\_\_\_, 『제주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_\_\_\_\_,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예술의 전당, 『추사(秋史) 한글편지』, 유일출판사, 2004.



장공남, 『제주도 귀양다리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2012.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제주삼읍교학사료집』, 2003.  
 제주도, 『제주선현지(濟州先賢誌)』, 제주도, 1988.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행정발전사』, 제주도교육청, 1991.  
 제주도지편집위원회, 『제주도지』, 제주도, 2006.  
 제주문화원, 『제주사인명사전』, 2002.  
 제주유림유백년사편찬위원회, 『제주유림유백년사』, 학문사, 199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2011.  
 한국인명사전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2) 논문 및 기타

강석규, 「조선조시대의 제주향토교육사」, 『교육철학』 4권, 한국교육철학회, 1980.  
 강제연, 「濟州島 流配期の 金允植」,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고범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고정우, 「桐溪 정운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고창석·양진건, 「濟州島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고창석, 「조선조의 유배제도와 제주도」,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_\_\_\_\_, 「조선후기 萬頃縣監을 지낸 제주인 吳廷賓」, 『한국인물사연구』 12호, 2009.  
 구사회, 「소송 홍유손의 시문학론」, 『민족문화』 제14호, 한국고전번역원, 1991.  
 김유리, 「충암(沖庵) 김정(金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_\_\_\_\_, 「규창(葵窓) 이건(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12.  
 \_\_\_\_\_, 「안조원의 『만언사(萬言詞)』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 『인문과학논총』 제31권 3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김인기, 「조선후기 면암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진철,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태영, 「충암 김정희의 생애와 사상」, 『호서문화연구』 제13호,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5.
- 김해영 · 김유리,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제4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 양기권, 「조선시대 순천부의 지방교육」,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양순필 ·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양은숙,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에 대한 제주교육사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양진건 · 김유리 · 현은선, 「유배양육일기 『양아록(養兒錄)』의 교육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7권 1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3.
- 양진건, 「朝鮮朝 濟州 流配敎育思想史 研究 - 道統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 \_\_\_\_\_, 「제주 오현의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 \_\_\_\_\_,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_\_\_\_\_,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활동 연구」, 『제주도연구』 제9집, 제주도연구회, 1992.
- \_\_\_\_\_,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제4집 3호, 한국교육인류학회, 2001.
- \_\_\_\_\_, 「勉庵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한국교육사학』 24-1, 한국교육사학회, 2002.
- \_\_\_\_\_,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5-1, 한국교육사학회, 2003.
- \_\_\_\_\_, 「秋史文獻拔萃學術調査」 보고서, 남제주군, 2005.
- \_\_\_\_\_, 「동계(桐溪) 정온(鄭蘊) 서원배향(書院配享)의 제주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0.
- 이승복, 「유배체험의 형상화와 그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이용훈, 「제주 서예 형성의 사적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종묵,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제21호, 한국한문학회, 1998.
- 장공남, 「제주유배문화 역사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활용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12.
- 장선영, 「조선시기 유배와 절도정배의 추이」,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시열,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 『한국고전연구』 2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정후수,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 『한성어문학』 제15호,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6.
- 조서현, 「제주유배인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평환, 「秋史 金正喜의 流配書簡에 나타난 濟州의 生活情緒」, 한서대학교동양고전연구소, 2007.
- 지철호, 「朝鮮前期의 流刑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최성환, 「조선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제37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1.
- 최인주,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한창덕,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홍순만, 「조선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 황금중, 「한국교육사 · 철학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 『한국교육사학』 제25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3.
- 황의동, 「기호학과와 영남유학의 특성」, 『동서철학연구』 제38호, 한국동서철학회, 2005.

**【Abstract】**

The Educational History Study of Exile in Jeju island  
during Chosun Dynasty

Kang Dong H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pecialized in Education  
Administration

Supervised by Prof. Yang Jin Gun

This study analyse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 Jeju island through exile.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is used for the first time instead of the term, ‘The Educating and Learning Activity of Exiles on Cheju Island’, which is normally used.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is a unique education culture which is made by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as well as the location, Jeju, which is suitable to isolate criminals because it was cut off from the mainland. For these reasons, the educational history of Jeju island is much more deeply and various.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in Chosun dynasty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ormer, the middle, the latter, and the last perio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of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educational history in Jeju by considering the states of exiles in each period and especially, the activities of those who have an effect on Jeju education.

The former period in Chosun dynasty, from King Taejo(1392) to King Injong(1545), is the so-called beginning one of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It is the time when the neo-Confucianism was adopted and promoted as the official ideology which established a centralized state.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was required to organize the institutional system. At that time, Jeju island could start to be equipped with the formal educational base which met the need of educational policy.

Many exiles visited Jeju island because of the four "Sahwa", which refers to a series of political purges in late 15th and 16th century, in which Sarim scholars suffered persecution at the hands of their political rivals, Hungu. Sarim scholars who originated from the neo-Confucian school were exiled into Jeju island. That's why Jeju education have accepted the Sarim's educational ideology. Kim Jung and Lee Sea Burn who have the student-instructor relations with Cho Gwang Jo, the best educator, affected the idea of Jeju education.

The middle period in Chosun dynasty, from King Meongjong(1546) to King Sukjong(1720), is the maturity of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Various regional and ideological factions struggled for dominance in the political system. Neo-Confucianism was developed and improved in the philosophy system. Banishing of going out Jeju island was prevalent, which blocked the route of education in this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exiles from the party strife and those who lived in Jeju compensated them for the contraction of education, which symbolized the Kul Lim Seowon(橘林書院),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Oh Hyun Canonization.

This process can bring Neo-Confucianism into Jeju island during 16 and 17 century. Therefore Jeju education came to maturity.

The latter period in Chosun dynasty, from King Keongjong(1712) to King Kojong(1896), is the practical period of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Power politics, which is called Sedo(勢道) and the disaster made the national finance keep on worsening. The economy of Chosun dynasty had faced with the bankruptcy because of the disorganization of three political categories, the land, the military and the rent of rice.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knowledge had been improved so people's critical mind developed more and more. Another thought had been created within Confucianism, which was

designed to counter the "uncritical" following of Confucian teachings and the strict adherence to "formalism" and "ritual" by Neo-Confucians.

Silhak, a Korean Confucian social reform movement and Wuijung Chuksa, the expulsion of all thoughts but Neo-Confucian were introduced into Jeju island and they made another tradition of Jeju education. From this practical effect, Jeju education was more active than before.

Kim Jeonghui and Choi Ikhyun are the most representatives among exiles in Jeju island. Disciples of Kim Jeonghui developed various cultural movements and the thoughts of Choi Ikhyun provided a background for Jeju Army Movement and the March 1st Movement, which are the new tradition of Jeju education during the latter period in Chosun dynasty.

The last period in Chosun dynasty, from the first year in Kwang Mu(1897) to the third year in Yung Hee(1910), is the turning point of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This indicated the time from the first enlightenment in 1878 to the pillage national rights by Japan in 1910. The reformist activists(Gaehwapa) actively participated to advance Western ideas and sciences in Korea. The goal of the reform movement was to develop the modern education.

This period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change the ole education system into the modern one by exiling the reformist activists into Jeju island. Women education can be started for the first time in no other than Jeju with Park Yeong-hyo, a enlightenment activist.

Jeju education and the exiles' educational activities are an inseparable relationship during Chosun dynasty. It is 'The Education of Exile in Jeju island' that takes an important part in Jeju education. Through this, the educational ideologies came into wide use, were taught and were discussed and then they made the educational tradition, which can emerge the special historical style of Jeju education.